

2024년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현황과 과제

| 일시 | 2024. 12. 26.(목), 10:30-12:20

| 장소 |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2024년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24. 12. 26(월), 10:30-12:2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비대면 줌 병행
| 주 최 | 육아정책연구소
| 일 정 표 |

사회: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시간	내용	
10:30~10:40	개회사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10:40~11:00	발표 1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유아 발달: 국내외 연구 결과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11:00~11:20	발표 2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심층조사 결과 이경옥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11:20~11:40	발표 3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일반조사 결과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1:40~12:10	토론 1	전숙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토론 2	민소영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 3	김연수 교수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토론 4	이보람 교수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12:10~12:20	마무리 및 폐회	

Contents |

| 개 회 사 |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1
------------------	---

| 발 표 1 |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유아 발달: 국내외 연구 결과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
----------------------	---

| 발 표 2 |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심층조사 결과

이경옥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27
------------------------	----

| 발 표 3 |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일반조사 결과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51
----------------------	----

| 토 론 |

전숙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73
--------------------------	----

민소영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77
-----------------------	----

김연수 교수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81
-----------------------	----

이보람 교수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82
-------------------------	----

개 회 사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바쁘신 연말에 제 9차 KICCE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2월 시작되어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글로벌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상황의 해제로 팬데믹의 긴급한 위험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돌봄 기관과 학교, 공공시설 등의 휴원·휴업 조치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이 경험하는 단절과 비대면의 경험은 생애초기 결정적 시기의 아동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직접적인 팬데믹 상황에서의 노출과 경험뿐만 아니라, 약 3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변화된 양육 환경과 돌봄 및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 기간을 직접 경험한 아동과 코로나 종식 이후 변화된 환경 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동을 포괄하여 코로나세대로 정의하고, 포스트코로나 영유아 발달 현황에 대한 1년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취학전 아동을 전국 표집에 의해 발달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현장의 우려와 발달지연의 위험이 현 시점 얼마나 지속 또는 회복되었는지, 코로나세대 아동이 어떠한 발달 특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포스트코로나 아동 발달의 현황과 시사점, 격차와 지연에 대한 우려를 실제 모습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발달검사에 응해주시고 내원해주신 전국의 선생님과 아이들, 부모님들께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토론으로 참여해주신 나사렛대학교 전숙영 교수님, 경기대학교 민소영 교수님, 전주대학교 김연수 교수님, 대구대학교 이보람 교수님, 사회를 맡아주신 이재희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그리고 올 한해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의 착수와 완료에 애써주신 연구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년의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한국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고, 포스트코로나 미래 세대의 역량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 결실을 잘 거두시고 2025년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육아정책연구소장 황옥경

발표 1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유아 발달: 국내외 연구 결과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Child Development Before During and After Corona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 발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친 영향

:ACE(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또래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교육 기회 감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커뮤니티 센터 이용제한 및 원격수업 전환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가 감소



신체활동 저하 및 스트레스

실외 활동 제한과 실내 공간 협소로 영유아의 신체활동이 줄어들어 신체 및 운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가정내 스트레스 .

코로나19 대유행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 연구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efore During and After Corona19

-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종료됨(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 5 May 2023)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의해 유발된 문제들의 어려움을 여전히 경험
 - 영유아기는 모든 발달 영역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발달 시기
 - 가소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코로나 이후 긍정적 지원의 효과 기대됨
- With CORONA : 결코 원점으로 돌아 갈 수 없는 생태

6

발표 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영유아 발달<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발달 및 정신 건강– 인지 언어 발달– 사회정서 발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요인과 위험요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환경 및 부모 요인– 지역 및 사회 경제적 요인–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기기 요인 |
|---|---|

코로나 전후
영유아기
전반적 발달 및 정신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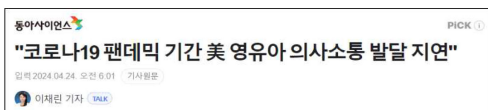
해외 연구 : 일본의 종단 연구

- 도쿄 근교 도시의 1세(1000명), 3세(922명)
- 2017년부터 2019의 기존 자료와 2021년 자료 비교
(5번의 종단적 측정 : 1차, 2차, 3차는 코로나 이전에 3차와 4차는 코로나 이후에 실시)
- 영유아 발달척도(KIDS: Kinder Infant Development Scale)
- ✓ 연령에 따른 차이
: 1~3세에는 팬더믹 노출이 전반적 발달과 부정적 관련성 나타나지 않았지만 3~5세의 경우 팬더믹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
- ✓ 팬더믹 기간동안 개인차 및 보육시설 차이 확대
: 1~3세 집단에서 변산은 개인 간 8배, 보육 시설 간에는 16배로 증가했으며, 3~5세 집단에서는 개인 변산 2배와 보육시설 간 3배 증가.

해외 연구 : 독일의 종단 연구

- 2020년 4월에 첫 종단 측정~2021년 3월
[봉쇄(T1)-봉쇄 완화(T2)-다시 봉쇄(T3)-봉쇄 완화(T4)]
- 온라인 설문지: 부모의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가족 관련 안녕감, 부모 자녀 관계의 질 등을 측정
 - ✓ 아동의 문제 행동은 봉쇄 기간에 가장 증가하고 완화 기간에 회복되는 양상
 - ✓ 정서적 안녕감은 완화 기간에 높아지는 양상
 - ✓ 가족 관련 안녕감은 초기 봉쇄 기간 동안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 ✓ 팬데믹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효과가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결과

해외 연구 : 미국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48개 주 5000개 이상 소아과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인 '종합건강 및 의사결정정보시스템(CHADIS)'에서 영유아 5만205명 대상
- 아동의 신경발달 상황을 평가하는 '연령 및 발달 단계 설문지-3(ASQ-3)'를 사용
- ✓ 팬데믹 발생 전후 의사소통 능력 3%, 문제해결 능력2%, 사회성 영역 점수2% 감소 반면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기술 영역에서는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해외 연구 : 미국의 종단 연구

미국의 영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코펜더믹에 따른 영아 발달과 어머니의 정신 건강 종단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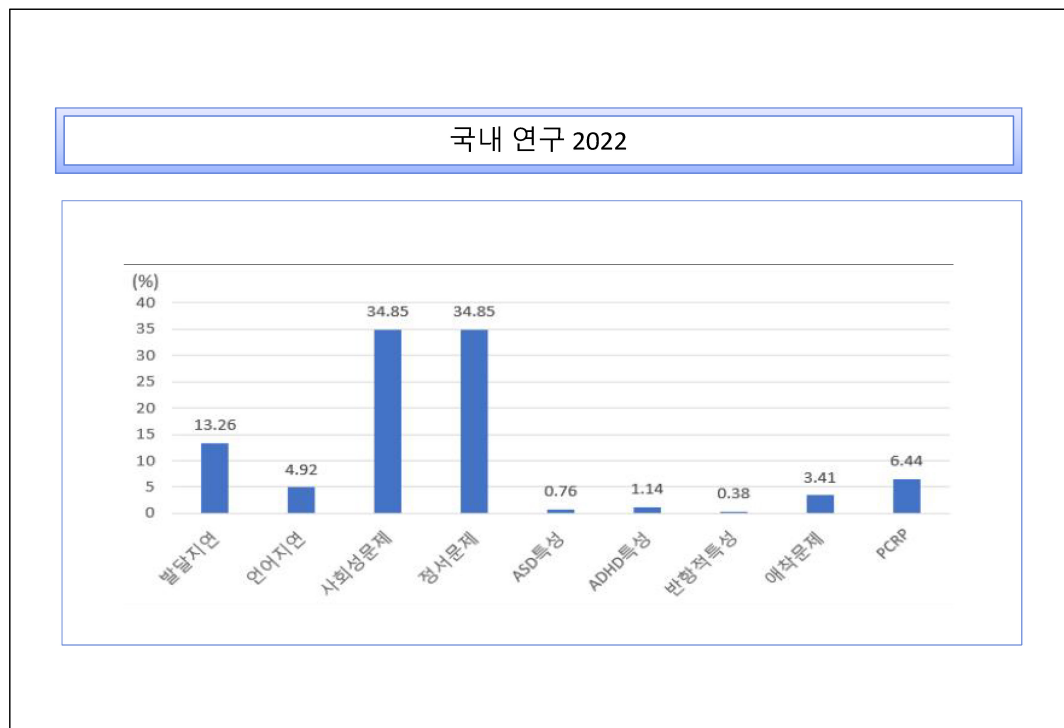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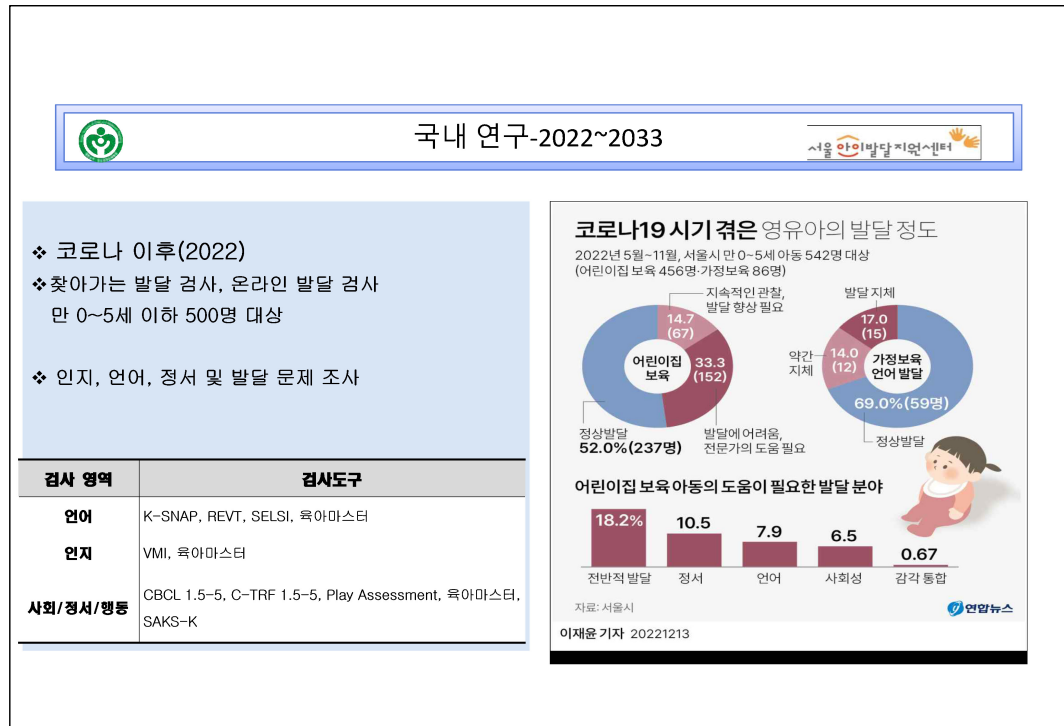
Sperber와 동료들(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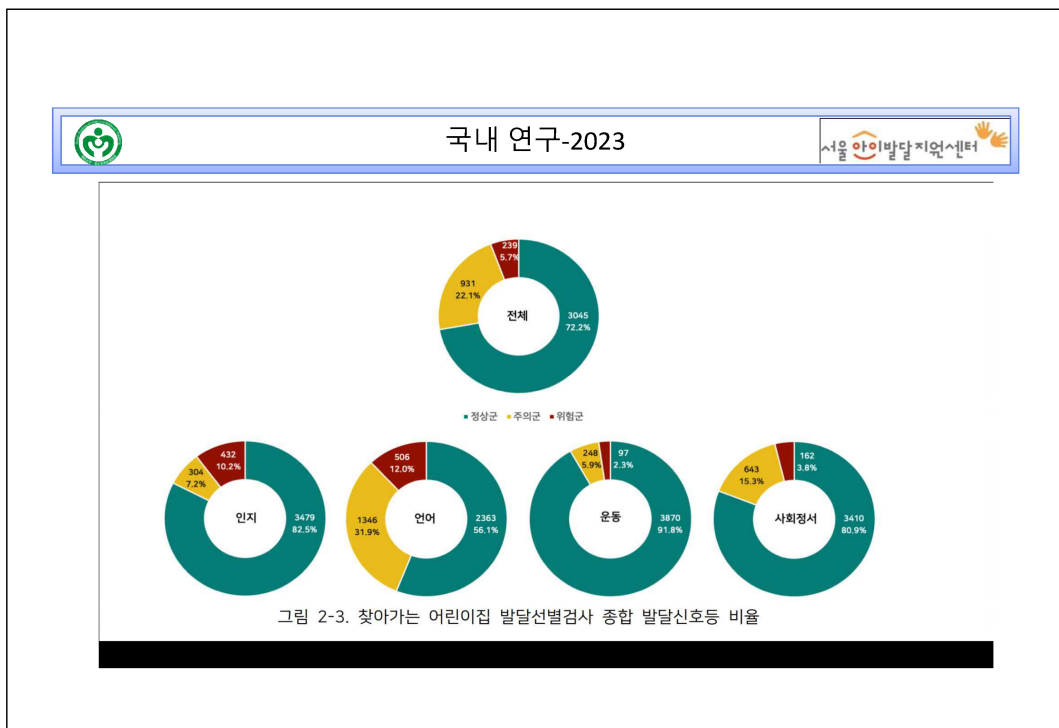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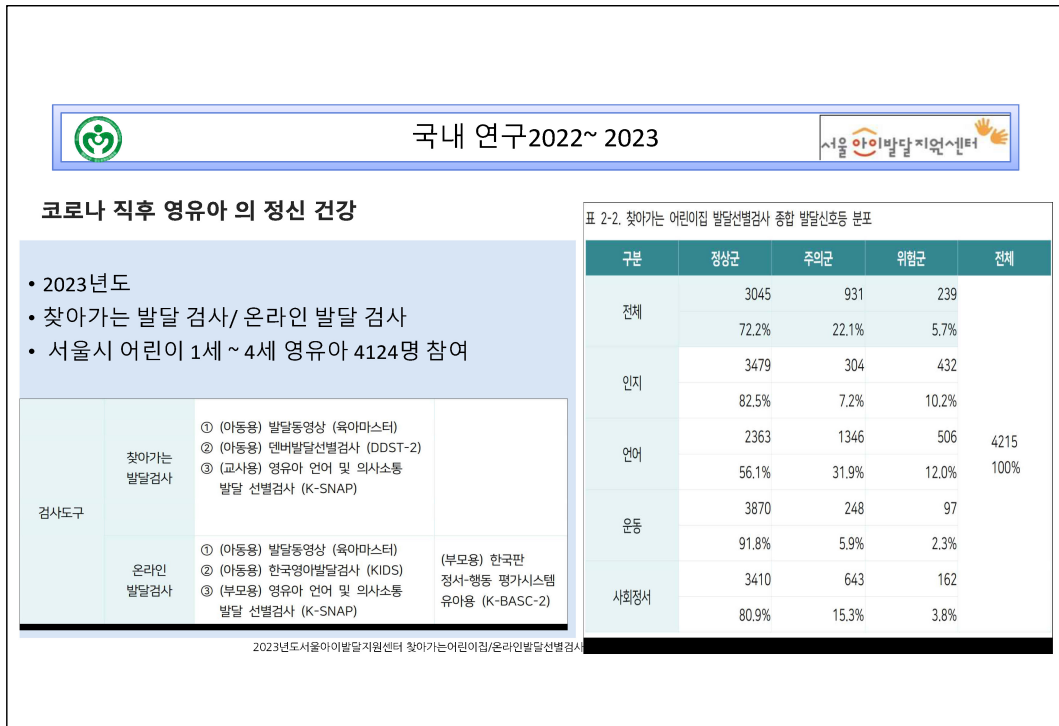
- 임산부 93명을 대상 출산 전, 출산 후, 12개월, 24개월에 걸쳐 종단적 조사
 - 어머니 대상: 우울(PHQ-8), 불안(Beck's Anxiety Inventory), 스트레스 인식 척도(PSS)
 - 영아 대상 : 사회정서적 평가(BITSEA)와 언어발달(MCDI)
- ✓ 팬더믹 노출 기간은 12개월, 24개월 영유아 사회 정서 문제, 언어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12개월, 언어 발달에서 약간의 감소, 24개월까지 지속되지 않음.
- ✓ 12-24개월, 혼란스러운 생활 사건과 사회정서와 언어 발달 문제와 유의미한 관련성 나타내지 않음



해외 연구 :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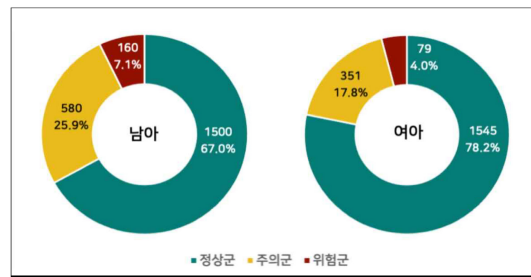
- 팬더믹이 이후, 확진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를 확인
: 포스트 코비드 상태(Post Covid Condition: PCC), 롱코비드(Long COVID)를 직접 검증 (Li 등, 2024)
 - 2022년 7월~ 2023년 4월, 아동 90명, COVID-19 기록, 증상
 - CBCL, COVID-19 충격 사건 척도(IES-C), 가족 APGAR 설문지
- ✓ PCC를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문제 행동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났으며, PCC를 경험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문제 행동이 유의미하게 지속
- ✓ 코로나 확진의 경험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집중적으로 탐색





국내 연구-2023

- 성별 차이 : 남아가 더욱 심각함/ 특히, 인지과 언어 영역에서



코로나 전후
영유아기
사회 정서 발달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해외 연구 : 인도네시아

- 3~6세의 미취학 아동 546명 (Shorer와 Leibovich, 2022)

	팬더믹 전		팬더믹 후	
	옥야카르타 (N: 103)	옥야카르타 (N:90)	자카르타 (N: 150)	자와바랏에 (N: 193)
자기 조절	3.25(.59)	2.95(.55)	2.79(.80)	3.02(.76)
정서 및 표현	3.22(.48)	2.92(.51)	2.74(.79)	2.87(.74)
사회적 상호작용	3.25(.54)	3.02(.52)	2.78(.76)	2.99(.73)

- 2세~7세 351명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 및 놀이성(playfulness)조사
:부모의 유쾌함/놀이성은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보호요인



해외 연구 : 마스크 쓰기과 사회인지적 유능성 (Giodano와 그의 동료들,2024)

- 3~5세 유아 77명 을 다음의 네 조건에 할당 후, 행복, 슬픔, 화, 두려움 정서를 식별하도록
 - 1)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사진,
 - 2)마스크를 쓴 사람의 사진,
 - 3)마스크를 쓴 사람의 동영상,
 - 4)마스크를 쓰고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
- ✓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든 조건에서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
- ✓ 긍정 -부정 차이 없음
- ✓ 정보의 양과 질이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의 수준이 높아짐
- ✓ 시각적 정보가 제한될 때, 아동은 청각적 단서의 도움을 받아 이를 식별
- ✓ 코로나 시기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에도, 성인이 감정을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소통 능력 발달을 지원

국내연구

- 발달적 문제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의 확연한 차이(**진미경, 2023)
- 2022년 8월~10월 25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415명과 부모 및 교사 대상
- 부모용 유아 행동 평가 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와 교사 유아 행동 평가 척도(Korean Caregiver-Teacher Report Form)를 사용
- ✓ 교사들은 영유아의 정서, 행동, 발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
- ✓ 부모용 유아행동평가에 비해 교사용 유아행동평가에서 약 3배의 영유아가 준임상군/임상군으로 선별됨

〈표 4〉 부모(CBCL)와 교사(TRF) 간 유아행동평가 T 점수 차이

구분	부모(n=415)		교사(n=415)		t
	M	SD	M	SD	
문제행동총점	46.67	9.41	51.62	11.84	-7.43***
내재화 문제	45.69	8.97	50.60	10.62	-7.81***
외현화 문제	47.20	10.05	52.16	11.99	-7.50***
정서적반응성	52.83	4.83	54.74	6.91	-4.73***
불안/우울	51.77	3.84	53.61	6.00	-5.49***
신체증상	52.16	4.33	52.33	5.42	-0.57
위축	51.83	4.18	54.38	6.79	-7.43***
수면문제	54.65	6.26	-	-	-
주의집중	52.44	4.71	55.48	8.61	-6.84***
공격행동	52.89	5.40	55.65	8.12	-6.55***
기타문제	52.57	4.55	54.93	6.58	-6.45***
DSM 정서문제	52.51	4.31	54.50	6.64	-5.37***
DSM 불안문제	52.35	4.38	54.04	6.35	-4.73***
DSM 전반적 발달문제	52.80	5.06	54.73	6.94	-5.42***
DSM ADHD	53.23	5.48	55.96	8.05	-6.29***
DSM 만항행동문제	52.92	5.33	55.90	8.41	-6.87***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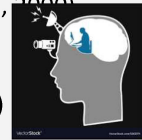


인지 언어 발달의 갈등적 결과

- 서울 아이 발달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진단적 조사에서는 언어영역의 발달에서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아동의 인지 능력은 코로나 이후에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팬더믹과 영유아기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발달

-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Rachel L.C. Mitchell, Louise H. Phillips, 2007)
 -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본적 인지 조절과정
 - 목표지향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의식적 통제'를 수반한, '영역 일반적', '기본적 인지 기능'
 - 인지적 수행, 학습, 자기조절, 적응, 안전 사고, 정서 조절 등 에 관련된다.
 - 실행 기능의 요소 : 작업기억, 전환능력, 반응억제 (Miyake et al., 2000)
- 실행기능의 발달
 - 실행기능은 전두엽의 발달과 시기적으로 유사(Anderson, 2002)
 - 실행기능은 만3-5세에 급격히 발달(Garon, Bryson, & Smith, 2008)



팬더믹과 영유아기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의 발달

- Kristin과 동료들의 연구(2023) 영아기, 유아기 두 코호트를 대상
- 팬더믹 전과 팬더믹 기간을 포함하는 두 개의 종단적 프로젝트 자료
- 측정 도구 : 교사가 평가하는 어린이 실행 기능 목록(CHEXI), 언어명령을 기반으로 아동의 행동 통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Head Toes Knees Shoulders(HTKS)과제

✓ 아동 행동 평가에 대한 객관적 점수는 모든 코호트에서 학기가 지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 교사가 보고한 측정치에서는 소폭 감소

✓ 전환 코호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가족의 문제가 높을수록 유치원 입학 후 객관적 실행기능 점수도 낮아짐

학령 전기에 실행 기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팬더믹이 실행기능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제언*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를 중심으로 본 코로나 경험의 영향

- 우루과이에서는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를 중심으로 유아기 인지 발달에 코로나 경험 이 끼친 영향을 연구
 - 4~6세 아동을 코로나 전 코호트와 코로나 후 코호트로 나누어 비교
 - 운동,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아동 발달 인벤토리(INDI)를 사용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세 차례에 걸쳐 종단적으로 교사가 평가
- ✓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코호트 간, 실행기능, 내재화 행동, 학습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



팬더믹 기간 아동과 청소년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증상 변화 메타분석

- 종단적 연구와 회고적 연구 18개 자료를 분석
- 팬더믹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ADHD 증상 증상이 유의미하게 증가
: 효과 크기 0.270 ($p < .001$)
- 성차는 없음


Rogers와 McLean(2023)

언어발달 Before During and After Corona19 (Feijoo와 동료들, 2023)

- 카탈루냐어 버전의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 목록(MB-CDI)
 - 팬더믹 이후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의사소통 상호작용 다양성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표현 어휘 조사
- ✓ 코로나 이전 출생 영아 보다 이후 집단에서 표현 어휘의 평균이 낮음
- ✓ 마스크 사용은 표현 어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으나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의 다양성은 전체 표현 어휘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

18

요약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 영유아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부정적 영향 - 시기, 성별, 측정자에 따라 갈등적 결과 - 팬더믹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을 함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환경 및 부모 요인 - 지역 및 사회 경제적 요인 -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기기의 과사용 |
|--|---|--|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가정 환경 및 부모



굿네이버스의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2020 -2021

- 아동 발달과 보호자의 생활 실태와 변화를 추적 조사
 - 신체 발달 문제 : 부모 양육스트레스, 온라인 게임시간, 가정 내 어려움
 - 정서 발달 문제 : 가정 내 어려움,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식습관
 - 인지 발달 : 가정 내 어려움, 불안, 양육스트레스


굿네이버스



국내연구 : 부모의 심리적 특성 (홍예지(2022))

- 부모의 심리적 취약함은 부정적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15명을 대상
- 코로나 시기, 어머니의 정서적 외로움,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팬더믹이 일상에 미친 영향 및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 측정

✓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인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낮음

팬더믹 기간의 보호요인: 부모의 유능함과 양육 행동 (Shorer & Libovich, 2022)

- 팬더믹 기간, 부모의 정서 조절과 놀이성이 아동 정서적 스트레스 반응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아동용 스트레스 반응 체크리스트(SRCL), 부모 정서조절어려움 척도(DERS), 놀이성 설문지(PPQ)를 사용
- 결과
 - ✓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 상황과 아동의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 완전 매개
 - ✓ 아버지의 놀이성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문제적 반응을 감소시킴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지역 및 사회경제적 요인

해외 연구: 독일

-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5~7세 아동을 대상
- 팬더믹 이전(2018/2019, 19299명), 팬더믹 초기(2019~2020, 19916명), 팬더믹 기간(2020~2021, 19698명) 학교 입학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
- ✓ 모든 조사 시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이들의 언어, 학습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음
- ✓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간이나 그 이상인 경우 아동의 학습장애 유발에 팬더믹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낮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음
- ✓ 유치원 교육 기간이 언어 발달과 유의미한 관련성
- ✓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속한 아동들의 경우 코로나 시기,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유치원을 다님



사회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조사 :미국과 국내 연구

- 2020년 3월 후 18개월 동안 미국 ECHO(Environmental influences on Child Health Outcomes)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팬더믹 기간 동안 미친 발달 기능의 손실을 조사
- ASQ(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를 사용
- ✓ 사회 계층별 차이 나타나지 않음
- 2022년 육아정책 연구소의 코로나 이후 영유아의 학습 격차 연구
- ✓ 가구 소득은 영유아 전반적 지능 발달의 차이를 추가하는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해외 연구 : 팬더믹시기 지역별 차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

- 도시와 농촌의 차이 : 인구 밀도, 경제적 상황, 자원 접근성
- 유아의 신체적 건강, 일상생활 및 자립 능력, 정서 및 심리적 건강, 사회적 기술 및 대인 관계,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지식 및 학습 측정
- 부모 참여 수준(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지식, 양육 행동, 학교와의 의사소통)
- 연구 결과
 - ✓ 도시와 농촌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신체 건강, 일상생활 및 자기 관리 능력, 정서와 심리적 건강,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에서는 농촌의 유아가 더 높은 수준
 - ✓ 언어 및 의사소통과 지식과 학습 기술에서는 도시 지역의 유아가 더 높은 수준

해외 연구 : 팬더믹시기 지역별 차이 (중국의 도시와 농촌)

- ❖ 도시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아 집단 발병 가능성이 더 커 여행 금지 및 봉쇄 조치가 농촌 지역보다 더 엄격-> 격리가 어린이의 생활과 초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농촌 지역보다 더 두드러짐
- ❖ 농촌 거주자의 긍정적인 측면, 환경오염 감소 및 자연 및 녹지 접근성 증가와 같은 점이 팬더믹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제한된 실내 생활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 ❖ 자연에의 노출은 아동의 생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더믹 동안 아동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기술



팬더믹시기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의 의존

- 신체활동은 59%가 감소
-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66%, 비디오 게임 시간 35%, 스크린을 보는 시간은 81%가 증가 (Guan 등, 2020)
-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 영아 수면 문제(Kahn et al., 2021),
 - 행동 문제(Shinomiya et al., 2021),
 - 부정적 경험(Jackson et al., 2021),
 - 행동 및 정서적 문제(Monteiro et al., 2021)
- 스크린 노출 시간의 증가는
 - 전반적 사회정서 문제,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 주의 문제 (Monteiro et al, 2021)

팬더믹시기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의 의존

- 팬더믹 기간 아동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Islam & Islam , 2023)
 - ✓ 과도한 화면 시청은 학업 성취도 저하, 주의력 감소, 기억력 약화 등 인지 발달의 문제
 - ✓ 비만, 수면의 질 저하, 운동 부족을 포함한 신체적 문제
 - ✓ 불안, 우울증, 정서 조절 능력 감소, 공감 능력 감소를 비롯한 정서 문제, 의사소통 능력 저하, 비언어적 단서 해석 능력 감소의 문제를 증가

온라인 교육과 학교 준비



- 인도네시아, 팬데믹 기간(2020~2021년) 온라인 학습을 경험했고 초등학교를 2021~2022년에 입학한 326명의 학생의 부모와 34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학교 준비도를 측정
 - ✓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동이 소근육 운동 기술, 동기, 도덕, 인지 기술, 언어 기술은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
 - ✓ 사회적 기술, 대근육 운동 기술, 정서적 기술 및 예술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인식
- 영유아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는 미취학 아동의 사회,정서적 학교 준비(school readiness)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증명(Bratanoto et al., 2022)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의 보호요인 : 부모의 지도 방식

- 부모의 디지털 양육 전략(Senol et al., 2024)
 - 이용 규칙을 기초로 감독으로 지도하는 적극적 전략,
 - 게임을 지지하는 부모 지도 전략,
 - 자율로운 사용 허용,
 - 기술적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하는 기술적 부모 지도
- ✓ 적극적 지도 전략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정 내 디지털 게임중독을 줄이는 데 효과적
- ✓ 디지털 지향적 부모 전략과 자유로운 부모 전략은 게임 중독을 증가

- ❖ 발달 문제의 현실: 팬데믹은 영유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전히 주의가 필요함.
- ❖ 팬데믹에 따른 영유아 발달의 결과는 단순하고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유아의 가소성, * 환경적 지원)
- ❖ 복잡한 역동 : 부모와 교사, 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정교한 발달적 결과



감사합니다



발표 2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심층조사 결과

이경옥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주요 연구결과 1: 심층조사 결과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

2024. 12. 26.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경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I 심층조사 목적

II 심층조사 방법

III 심층조사 결과

IV 심층조사 논의 및 결론

I

심층조사의 목적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30

이론적 배경

심층조사 목적

이론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연구 동향(김예슬, 김효숙, 서민정, 이주연, 2024)
 - 2020년 초에 시작하여 2023년까지 영유아 관련 연구, 총 219편의 논문 분석
 - ...대부분의 연구는 교사에 관한 연구(78편, 33.1%), 그 다음으로 부모(49편, 20.8%), 기타자료 (35편, 14.8%), 예비교사(29편, 12.3%), 원장(18편, 7.6%) 등이었으며, 영유아 대상 연구는 12편(5.1%)으로 가장 낮음.
-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발달격차에 대한 영유아교사 인식(최은희, 정지현, 2022)
 - 코로나 전과 후 영유아 발달에 사회성, 언어, 대근육, 소근육, 자조, 인지 순으로 발달격차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성과 언어발달에서 격차가 크다고 인식
- G도에 근무하는 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대상 연구(김지원, 이정표, 2024)
 - 80% 이상이 코로나19가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사소통 영역'과 '사회관계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론적 배경	심층조사 목적
<h2>이론적 배경</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시기 영유아 발달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진미경 외,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COVID-19 시기를 겪은 국내 영유아의 전반적 신경인지 발달 및 정신건강 실태 파악 연구결과: 2개 이상의 발달영역에 발달적 문제가 있음을 진단받은 영유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실제 발달문제를 호소하는 영유아 중 상당수가 특정 발달 문제에만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발달 및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상반된 의견 보고 대규모 영유아를 대상 팬데믹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을 보고 한 최근의 국외 연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영유아의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이전 출생한 영유아 보다 현저히 감소했고, 신체발달과 사회성 발달 영역이 지연되었다고 보고(Deoni et al., 2021; Shuffrey, Firestein, Kyle, Fields, Alcántara, Amso, D. & Dumitriu, D., 2022; Kılıç & Seyda Koçak, 2023) 코로나19를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수의 연구결과 (권성준, 2021; 박영심 외 2021; 최은영 외, 2022; 최은영, 2023; Imboden, Sobczak & Griffin, 2022) 	



이론적 배경	심층조사 목적
<h2>이론적 배경</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연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과 2020년의 수행평가를 비교분석하고, 영아의 발달차이를 연구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발달정도가 미세하게 낮았지만, 독서 강화, 근접·반복대화, 대체활동 등의 대안적 보육활동 등으로 영아발달에 심각한 저해는 없었고, 오히려 일부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향상된 발달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보고 최근 수행된 석사학위 논문(윤빛나,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2명의 2019년생 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COVID-19(코로나19) 시기의 아동 보육 실태 및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이 크게 지연되는 부정적인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이론적 배경

심층조사 목적

이론적 배경

- 굿네이버스의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연구(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 감정, 신체, 인지, 사회성 4가지 영역을 살펴본 결과, 사회성 발달을 제외하고 2020년과 2021년 사이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동의 무력감, 우울, 불면, 식욕 저하, 집중력·판단력 저하 등이 심화되었음을 보고
 - 만4세 미취학 시기부터 만17세 고등학생까지를 폭넓게 살펴본 연구로 영유아에 집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이론적 배경

심층조사 목적

심층조사 목적

-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코로나세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애 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 시기의 발달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자 함
 - 영유아의 발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2세(반)(2021~2022년생) 유아 100명, 5세(반)(2018년생) 유아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웨슬러 지능검사/바인랜드 적응행동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출생연도	2022~2021년생	2018년생
출생연월	2021.5~2022.4	2018.1~2018.12
보육연령	1~2세반	5세반
계	100명	100명

- 영유아의 인지, 발달 및 적응행동을 살펴보고,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함

심층조사 방법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조사대상

명(%)

구분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2세(반)	14 (14.28)	15 (15.31)	29 (29.59)	10 (10.20)	21 (21.43)	31 (31.63)	8 (8.16)	10 (10.20)	18 (18.36)	10 (10.20)	10 (10.20)	20 (20.40)	42 (42.86)	56 (57.14)	98 (100)
평균월령 (SD)	37.18 (3.20)	37.82 (3.05)	37.51 (3.09)	34.85 (4.37)	36.03 (3.53)	35.65 (3.79)	36.31 (4.06)	35.62 (3.39)	35.93 (3.60)	38.15 (2.92)	36.98 (2.83)	37.57 (2.86)	36.61 (3.69)	36.61 (3.29)	36.64 (3.45)
5세(반)	13 (13)	13 (13)	26 (26)	15 (15)	17 (17)	32 (32)	9 (17)	12 (12)	21 (21)	13 (13)	8 (8)	21 (21)	50 (50)	50 (50)	100 (100)
평균월령 (SD)	74.62 (3.93)	74.54 (4.93)	74.58 (4.37)	75.87 (2.72)	74.94 (3.17)	75.38 (2.96)	74.67 (2.92)	75.58 (2.78)	75.19 (2.80)	78.46 (2.93)	74.63 (4.07)	77.00 (3.82)	76.00 (3.44)	74.94 (3.67)	75.47 (3.58)


 유아정책연구소

10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조사도구 : 1~2세(반) K-Bayley-4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척도	소검사/하위영역	문항수	내용
인지	인지	81	감각운동 발달, 탐색과 조작, 사물관계, 개념형성, 기억력, 실행기능의 전구체, 기타 인지처리 측면을 측정
언어	수용언어	42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해, 어휘 이해(예: 명명된 사물과 그림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 대명사나 위치어의 이해, 시제(-했-)와 사동/피동과 같은 문법형태소 이해, 사회적 참조와 언어이해를 측정
	표현언어	37	언어 이전 의사소통(옹알이, 몸짓하기, 공동주의하기, 번갈아 주고받기 등), 어휘 발달(사물, 사진, 사물의 속성 명명하기), 통사와 형태소 발달(2단어 발화 등)을 측정
운동	소근육운동	46	잡기, 지각-운동 통합, 운동계획, 운동속도와 관련된 기술을 측정
	대근육운동	58	주로 팔다리(사지)와 몸통의 근위안정성(proximal stability)과 움직임, 정적 자세(예: 앉기, 서기)와 동적 움직임(예: 이동능력, 협응능력, 균형, 운동계획 등), 신경발달을 측정
사회정서	사회정서	35	감각처리와 기능적 정서기술의 숙달정도를 측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Child Care Policy Research Center

11

34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조사도구 : 1~2세(반) K-Bayley-4 적응행동

척도	소검사/하위영역	문항수	내용
적응 행동	의사소통	수용	23 다른 사람의 정보에 관심 가지기, 이해하기, 반응하기
		표현	28 단어와 문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자신 표현 사용하기
	생활기술	개인/자조	30 먹기, 입기, 씻기, 위생, 건강관리 등을 스스로 하기
	사회화	대인관계	20 우정, 보살핌, 사회적 적절성, 대화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맺기
		놀이/여가	19 다른 사람들과 놀거나 재미있는 활동하기
	전체		120


 육아정책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12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조사도구 : 5세(반)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K-WPPSI-IV)

기본지표	소검사	문항수	내용
인지	그림명명	24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측정
	수용어휘	31	
	상식	29	
	공통성	23	
시공간	토막짜기	17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
	모양맞추기	13	
유동추론	행렬추리	26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
	공통그림찾기	27	
작업기억	그림기억	35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을 측정. 특히 시각적 작업기억, 시공간 작업기억, 순행기억 간섭을 극복하는 능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요소를 평가함
	위치찾기	20	
처리속도	동형찾기	66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소요시간을 측정
	선택하기	2	
전체IQ		313	

 유아지능검사

13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조사도구 : 5세(반) 바이랜드 적응행동척도-3판(K-Vineland-3)

주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내용
의사소통	수용	39	개인이 얼마나 듣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표현	49	개인이 말한 것, 정보를 제공하고 모으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상생활기술	개인	55	어떻게 먹고, 입고, 개인위생 관리하는지
	가정	30	개인이 수행하는 집안일
사회성	대인관계	43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놀이와 여가	36	어떻게 놀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처기술	33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세심함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운동기술	대근육	43	개인이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지
	소근육	34	개인이 사물을 조정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응행동		362	


 유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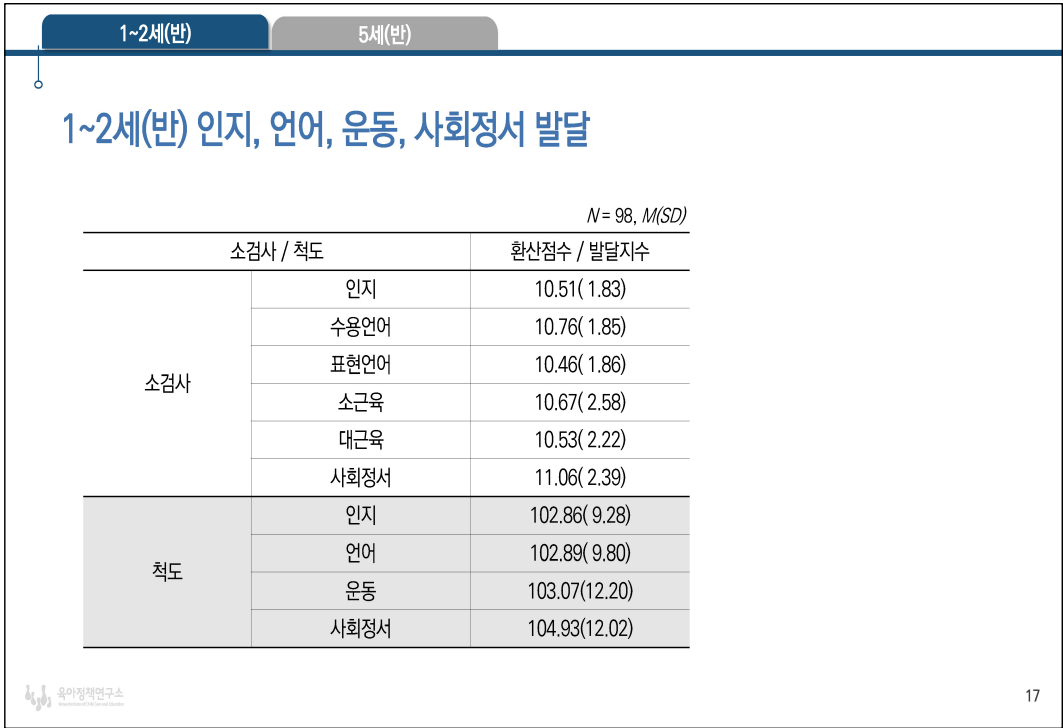
14

조사대상	조사도구	조사절차																		
<div>조사절차</div> <table><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tr><td>연구대상 모집</td><td>한국 리서치 1차 표집 : 9월 10일 2차 표집 : 11월 01일 덕성여대 표집 : 9월 10일~ 12월 6일</td><td></td></tr><tr><td>검사장소 섭외</td><td>서울(2), 경기도(2), 전라도(3), 경상도(4) 총 11곳</td><td></td></tr><tr><td>검사자 모집</td><td>K-WPPSI-IV (7명) , K-Bayley-4 (10명)</td><td></td></tr><tr><td>검사 실시</td><td>5세(반) K-WPPSI-IV: 9월 23일 ~ 12월 9일 K-Vineland-3: 9월 23일 ~ 12월 9일 1~2세(반) K-Bayley-4: 10월 19일 ~ 12월 10일</td><td></td></tr><tr><td>검사 상담</td><td>5세(반) K-WPPSI-IV: 진행 중 1~2세(반) K-Bayley-4: 진행 중</td><td>12월 26일까지 완료 예정</td></tr></table>			구분	내용	비고	연구대상 모집	한국 리서치 1차 표집 : 9월 10일 2차 표집 : 11월 01일 덕성여대 표집 : 9월 10일~ 12월 6일		검사장소 섭외	서울(2), 경기도(2), 전라도(3), 경상도(4) 총 11곳		검사자 모집	K-WPPSI-IV (7명) , K-Bayley-4 (10명)		검사 실시	5세(반) K-WPPSI-IV: 9월 23일 ~ 12월 9일 K-Vineland-3: 9월 23일 ~ 12월 9일 1~2세(반) K-Bayley-4: 10월 19일 ~ 12월 10일		검사 상담	5세(반) K-WPPSI-IV: 진행 중 1~2세(반) K-Bayley-4: 진행 중	12월 26일까지 완료 예정
구분	내용	비고																		
연구대상 모집	한국 리서치 1차 표집 : 9월 10일 2차 표집 : 11월 01일 덕성여대 표집 : 9월 10일~ 12월 6일																			
검사장소 섭외	서울(2), 경기도(2), 전라도(3), 경상도(4) 총 11곳																			
검사자 모집	K-WPPSI-IV (7명) , K-Bayley-4 (10명)																			
검사 실시	5세(반) K-WPPSI-IV: 9월 23일 ~ 12월 9일 K-Vineland-3: 9월 23일 ~ 12월 9일 1~2세(반) K-Bayley-4: 10월 19일 ~ 12월 10일																			
검사 상담	5세(반) K-WPPSI-IV: 진행 중 1~2세(반) K-Bayley-4: 진행 중	12월 26일까지 완료 예정																		
		15																		

III

심층조사 결과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1~2세(반)

5세(반)

1~2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발달

N = 98, M(SD)

소검사 / 척도		환산점수 / 발달지수		t	p	effect size
		남(n = 42)	여(n = 56)			
소검사	인지	10.40(1.48)	10.59(2.06)	-.515	.607	-.10
	수용언어	10.67(1.41)	10.82(2.13)	-.432	.667	-.09
	표현언어	10.40(1.50)	10.50(2.10)	-.262	.794	-.05
	소근육	9.86(2.47)	11.29(2.51)	-2.803*	.006	-.57
	대근육	10.76(2.26)	10.36(2.19)	.889	.376	.18
	사회정서	11.12(2.43)	11.02(2.38)	.206	.837	.04
척도	인지	102.05(7.47)	103.46(10.46)	-.782	.436	-.16
	언어	102.50(7.44)	103.18(11.32)	-.358	.722	-.07
	운동	101.57(12.85)	104.20(11.69)	-1.040	.301	-.21
	사회정서	105.05(12.03)	104.84(12.11)	.085	.933	.0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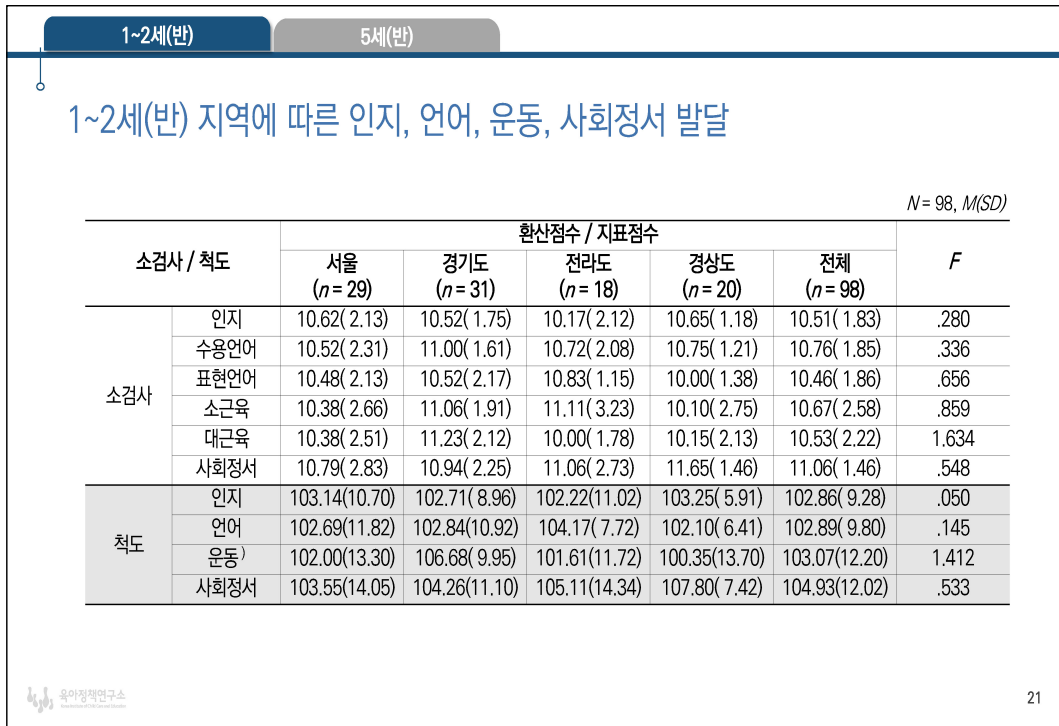
1~2세(반)

5세(반)

1~2세(반) 성별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N=98, M(SD)

영역		환산점수 / 발달지수		t	p	effect size
		남(n = 42)	여(n = 56)			
하위영역	수용	11.07(2.00)	11.25(2.26)	-.413	.680	-.08
	표현	11.64(2.42)	11.63(2.67)	.035	.972	.01
	개인/자조	10.69(2.38)	11.38(1.83)	-1.549	.126	-.32
	대인관계	11.33(2.11)	11.46(1.93)	-.315	.753	-.06
	놀이/여가	10.62(2.12)	11.16(2.24)	-1.223	.225	-.25
영역	의사소통	107.45(11.09)	107.75(12.01)	-.127	.899	-.03
	생활기술	103.00(11.86)	105.50(15.82)	-.894	.374	-.18
	사회화	106.38(10.53)	108.79(9.10)	-1.185	.240	-.24
적응행동		107.07(11.11)	109.09(10.68)	-.905	.368	-.19



1~2세(반)		5세(반)
5세(반)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 지표점수
소검사	토막짜기	11.14(3.58)
	상식	10.67(3.05)
	행렬추리	11.09(3.39)
	동형찾기	10.94(3.16)
	그림기억	10.67(2.81)
	공통성	10.00(2.77)
	공통그림찾기	10.58(2.66)
	선택하기	10.60(2.77)
	위치찾기	11.03(2.25)
	모양맞추기	10.88(2.17)
	선택하기(비정렬)	10.29(3.16)
	선택하기(정렬)	10.16(2.98)

1~2세(반)		5세(반)
5세(반)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¹⁾ / 지표점수 ¹⁾
지표	언어이해지표	102.53(15.02)
	시공간지표	105.17(13.65)
	유동추론지표	106.17(14.97)
	작업기억지표	106.12(12.99)
	처리속도지표	104.84(14.39)
	전체IQ	104.64(15.10)
	비언어지표	105.29(15.02)
	일반능력지표	104.30(15.93)
	인지효율성지표	104.88(15.12)

1~2세(반)

5세(반)

5세(반) 적응행동 발달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 표준점수
하위영역	수용	15.34(2.75)
	표현	14.95(2.67)
	개인	14.62(3.19)
	가정	15.64(2.77)
	대인관계	13.68(2.88)
	놀이와 여가	14.27(2.28)
	대처기술	13.70(2.94)
	대근육	14.11(2.54)
	소근육	14.71(1.95)
주영역	의사소통	99.06(14.51)
	일상생활기술	99.40(14.22)
	사회성	93.48(14.36)
	운동기술	96.67(12.69)
적응행동		96.44(14.93)

유아정착연구소
YOUNG CENTER FOR EARLY CHILDHOOD STUDY

25



1~2세(반)

5세(반)

5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 지표점수	<i>t</i>	<i>p</i>	effect size	
		남(<i>n</i> = 50)	여(<i>n</i> = 50)			
소검사	토막짜기	10.86(3.58)	11.42(3.59)	-.781	.436	-.16
	상식	11.10(2.96)	10.24(3.10)	1.418	.159	.28
	행렬추리	11.06(3.29)	11.12(3.51)	-.088	.930	-.02
	동형찾기	10.42(2.97)	11.46(3.28)	-1.661	.100	-.33
	그림기억	10.54(2.60)	10.80(3.02)	-.461	.646	-.09
	공통성	9.90(2.73)	10.10(2.82)	-.360	.720	-.07
	공통그림찾기	10.50(2.40)	10.66(2.91)	-.300	.765	-.06
	선택하기	10.28(2.38)	10.92(3.11)	-1.155	.251	-.23
	위치찾기	11.12(2.13)	10.94(2.38)	.398	.691	.08
	모양맞추기	11.10(2.19)	10.66(2.15)	1.014	.313	.20
	선택하기(비정렬)	10.12(2.81)	10.46(3.50)	-.535	.594	-.11
	선택하기(정렬)	9.68(2.74)	10.64(3.15)	-1.626	.107	-.33


 중앙정책연구소
 KOREAN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26


1~2세(반)

5세(반)

5세(반) 성별에 따른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 지표점수		t	p	effect size
		남(n = 50)	여(n = 50)			
지표	언어이해지표	103.38(14.75)	101.68(15.38)	.564	.574	.11
	시공간지표	104.98(13.06)	105.36(14.34)	-.139	.890	-.03
	유동추론지표	105.92(14.20)	106.42(15.84)	-.166	.868	-.03
	작업기억지표	105.96(11.39)	106.28(14.54)	-.123	.903	-.02
	처리속도지표	102.50(13.34)	107.18(15.13)	-1.640	.104	-.33
	전체IQ	103.78(15.33)	105.50(14.98)	-.568	.572	-.11
	비언어지표	103.76(14.56)	106.82(15.47)	-1.019	.311	-.20
	일반능력지표	104.36(16.04)	104.24(15.99)	.037	.970	.01
	인지효율성지표	103.24(13.63)	106.52(16.45)	-1.086	.280	-.22

 육아정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27

27


1~2세(반)

5세(반)

5세(반) 성별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N = 25, M(SD)

영역		v-척도점수 / 표준점수		t	p	effect size
		남(n = 16)	여(n = 9)			
하위영역	수용	15.56(2.56)	15.12(2.92)	.802	.425	.16
	표현	14.74(2.49)	15.16(2.85)	-.786	.434	-.16
	개인	14.54(3.30)	14.70(3.11)	-.250	.803	-.05
	가정	15.32(2.63)	15.96(2.90)	-1.156	.250	-.23
	대인관계	13.50(2.61)	13.86(3.15)	-.622	.535	-.12
	놀이 및 여가	14.18(2.42)	14.36(2.15)	-.393	.695	-.08
	대처기술	13.30(3.05)	14.10(2.80)	-1.367	.175	-.27
	대근육	14.40(2.60)	13.82(2.47)	1.143	.256	.23
주영역	소근육	14.56(1.94)	14.86(1.96)	-.770	.443	-.15
	의사소통	97.92(13.20)	100.20(15.76)	-.784	.435	-.16
	일상생활기술	98.98(13.85)	99.82(14.71)	-.294	.769	-.06
	사회성	91.62(14.75)	95.34(13.85)	.385	.701	-.26
적응행동	운동기술	97.16(12.78)	96.18(12.70)	-.910	.365	.08
	적응행동	95.08(14.20)	97.80(15.65)	1.178	.246	-.18

 육아정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28

28


1~2세(반)

5세(반)

5세(반) 지역에 따른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 지표점수					F
		서울 (n = 26)	경기도 (n = 32)	전라도 (n = 21)	경상도 (n = 21)	전체 (n = 100)	
소검사	토막짜기	10.69(2.94) ^{ab}	10.13(3.73) ^a	13.19(3.63) ^b	11.19(3.39) ^{ab}	11.14(3.58)	3.55 *
	상식	10.58(2.40)	10.41(2.99)	11.19(3.88)	10.67(3.07)	10.67(3.05)	.29
	행렬추리	11.12(4.02)	11.09(3.92)	10.81(2.64)	11.33(2.37)	11.09(3.39)	.08
	동형찾기	11.69(3.48)	10.06(3.13)	11.24(2.64)	11.05(3.15)	10.94(3.16)	1.40
	그림기억	11.96(2.82) ^b	9.41(2.51) ^a	10.76(2.64) ^{ab}	10.90(2.76) ^{ab}	10.67(2.81) ^a	4.47 **
	공동성	10.19(2.71)	9.59(2.39)	10.38(3.28)	10.00(2.93)	10.00(2.77)	.40
	공동그림찾기	10.96(2.55)	10.72(2.62)	10.19(2.54)	10.29(3.04)	10.58(2.66)	.44
	선택하기	11.27(2.52)	10.44(2.59)	9.95(3.43)	10.67(2.63)	10.60(2.77)	.92
	위치찾기	10.65(2.67)	11.25(2.40)	10.86(1.71)	11.33(1.98)	11.03(2.25)	.51
	모양맞추기	10.46(1.73)	10.84(2.19)	11.76(2.43)	10.57(2.27)	10.88(2.17)	1.65
	선택하기(비정렬)	10.73(2.66)	10.19(2.99)	9.86(3.93)	10.33(3.31)	10.29(3.16)	.31
	선택하기(정렬)	10.92(2.80)	9.97(3.16)	9.38(3.40)	10.29(2.37)	10.16(2.98)	1.11



교육과학기술부

29




1~2세(반)

5세(반)

5세(반) 지역에 따른 인지능력 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 / 지표점수	F				
		서울 (n = 26)	경기도 (n = 32)	전라도 (n = 21)	경상도 (n = 21)	전체 (n = 100)	
지표	언어이해지표	102.96(12.77)	100.56(12.98)	105.14(19.55)	102.38(15.99)	102.53(15.02)	.40
지표	시공간지표	102.50(10.24) ^a	102.09(13.71) ^a	113.95(14.53) ^b	104.38(13.50) ^{ab}	105.17(13.65)	4.16**
지표	유동추론지표	107.50(16.27)	106.56(16.43)	104.05(12.80)	106.05(13.72)	106.17(14.97)	.21
지표	작업기억지표	108.88(15.77)	103.03(12.99)	105.86(11.30)	107.67(10.39)	106.12(12.99)	1.10
지표	처리속도지표	108.81(15.81)	101.94(13.63)	103.86(13.80)	105.33(14.09)	104.84(14.39)	1.14
지표	전체IQ	106.77(14.50)	99.88(15.69)	108.48(15.31)	105.43(13.83)	104.64(15.10)	1.74
지표	비언어지표	108.23(14.65)	100.84(16.86)	107.90(12.47)	105.81(14.23)	105.29(15.02)	1.51
지표	일반능력지표	103.65(15.98)	101.47(15.59)	109.00(16.86)	104.71(15.49)	104.30(15.93)	.96
지표	인지효율성지표	109.19(17.77)	101.06(14.17)	104.00(13.62)	106.24(13.77)	104.88(15.12)	1.49


 한국보건과학연구원
 KRIK

30


1~2세(반)

5세(반)

5세(반) 지역에 따른 적응행동 발달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 / 표준점수					F
		서울 (n = 26)	경기도 (n = 32)	전라도 (n = 21)	경상도 (n = 21)	전체 (n = 100)	
하위 영역	수용	14.85(3.43)	15.38(2.17)	16.19(2.25)	15.05(2.99)	15.34(2.74)	.38
	표현	14.12(3.02)	14.84(1.99)	15.86(2.76)	15.24(2.86)	14.95(2.67)	.15
	개인	14.35(3.50)	14.97(2.49)	14.62(3.80)	14.43(3.26)	14.62(3.19)	.89
	가정	15.00(3.38)	15.81(2.26)	16.29(2.65)	15.52(2.79)	15.64(2.77)	.45
	대인관계	13.73(2.97)	13.81(2.24)	13.10(3.21)	14.00(3.41)	13.68(2.88)	.76
	놀이 및 여가	14.08(2.81)	14.00(1.59)	14.86(2.24)	14.33(2.52)	14.27(2.28)	.57
	대처기술	13.42(3.11)	13.50(2.33)	14.81(2.94)	13.24(3.45)	13.70(2.94)	.28
	대근육	14.00(2.68)	14.13(2.47)	13.86(2.59)	14.48(2.56)	14.11(2.54)	.88
주 영역	소근육	14.69(2.15)	14.66(1.75)	15.33(1.74)	14.19(2.11)	14.71(1.95)	.30
	의사소통	96.19(17.46)	98.34(11.83)	103.71(13.13)	99.05(15.39)	99.06(14.51)	.36
	일상생활기술	97.38(17.27)	100.41(11.40)	100.57(14.71)	99.19(14.21)	99.40(14.22)	.85
	사회성	93.23(15.92)	93.00(9.86)	93.62(17.18)	94.38(16.01)	93.48(14.36)	.99
	운동기술	96.54(13.04)	96.44(11.96)	97.86(13.47)	96.00(13.37)	96.67(12.69)	.97
적응행동		94.65(18.01)	96.38(11.31)	98.62(14.87)	96.57(16.43)	96.44(14.93)	.85

 유아정책연구센터

31

IV

심층조사 논의 및 결론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결과요약	논의 및 제언
<p>결과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세(반) 심층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검사 결과: 평균수준 •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근육 소검사: 여아 > 남아 • 지역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관계 하위영역: 경상도 > 서울 	

33



결과요약	논의 및 제언
<p>결과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반) 심층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능력과 적응행동 발달검사 결과: 평균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행동의 주영역의 사회성이 다른 주영역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성별에 따른 인지능력과 적응행동: 차이 없음 • 지역에 따른 인지능력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간지표: 전라 > 서울, 경기 ...토막짜기 소검사: 전라도 > 경기 ...그림기억 소검사: 서울 > 경기 • 지역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없음 	

34

논의 및 제언

• 1~2세(반) 발달 차이

- 성별에 따른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발달 결과

... 소근육 발달: 여아 11.29 ($sd = 2.51$) > 남아 9.86 ($sd = 2.47$)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방안 연구 결과 (최은영 외, 2022, 2023)

... 2022년 연구 소근육 적응능력: 여아 15.93 ($sd = 3.58$) > 남아 14.35 ($sd = 3.51$)

... 2023년 연구 소근육 적응능력: 여아 17.03 ($sd = 3.10$) > 남아 16.46 ($sd = 3.02$)

☞ 소근육 발달의 남녀 발달차의 일반적 특성

논의 및 제언

• 5세(반) 적응행동의 사회성 영역

- 비교적 낮은 경향 보임

... 평균 93.48 ($sd = 14.36$), 나머지 영역: 99.67~99.06으로 낮은 경향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방안 연구 결과 (최은영 외, 2023)

... 2023년 연구 사회성: 사회성 영역 평균 113.40 ($sd = 15.76$)


☞ 사회성 발달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 있음

결과요약

논의 및 제언

논의 및 제언

- 기초 자료로서 1~2세(반)과 5세(반)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행동의 이해
- 성별, 지역 변인 외 다양한 영유아 관련 변인을 고려한 영유아 발달의 이해 필요성
-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 추이에 대한 관심 기울여야 함
- 표집 과정 및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 연구윤리의 중요성




37



참고문헌

참고문헌

-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생산함수 추 정과 양육지원 재정 정책에의 함의.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 김예슬, 김호숙, 서민정, 이주연 (2024).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국내 영유아 발달 연구의 동향 분석.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지원, 이정표 (2024). G 도 유치원 교사 인식을 통해 본 코로나 19 이후 유아 발달 실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1073-1092.
- 박영숙, 박정화, 정현정 (2021). 코로나 19 (COVID-19) 상황에서의 또래집단활동 통제로 인한 유아발달 분석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2), 265-272.
-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 (2021). 코로 나19 감염예방 조치에 따른 만2세 영아 발달 특성 고찰.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3), 487-495.



38

참고문헌

참고문헌

- 손수민 (2023). 코로나 19 상황에서 2 세반교사의 경험과 지원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8(5), 305-329.
- 윤빛나(2022). COVID-19 (코로나 19) 시기의 아동 보육 실태 및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2019 년생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원 (2022). 코로나 19 시기 아동 정책과 아동 삶의 변화. **동광**, 117, 45-70.
- 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아동발달과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72(2), 33-66.
- 진미경, 김봉년, 정운선, 배소영, 엄소용, 박민현, 박은아, 진연선, 정호연, 신의진(2023).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시기 영유아 발달 및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4), 1-13.
- 최은영 (2020). 유치원, 어린이집의 코로나 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80호.
- 최은영 (2023).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가구, 기관의 환경 변화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참고문헌

참고문헌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 정윤경, 심영규 (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육아 정책연구소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정 윤경, 심영규 (2023).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희, 정지현 (2022). 코로나 19 전후 영유아 발달격차에 대한 영유아교사인식.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9(2), 137-165.
- 홍은주, 김세영, 박혜원, 박연주(2023). 코로나 시기 영유아의 성별 및 부모의 부모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발달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8(4), 15-35.
- Deoni, S., Beauchemin, J., Volpe, A., & D'Sa, V. (2021).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Initial Findings in a Longitudinal Observational Study of Child Health. The preprint server for health sciences. preprint doi: <https://doi.org/10.1101/2021.08.10.21261846>; posted August 11, 2021.

참고문헌

참고문헌

- Imboden, A., Sobczak, B. K., & Griffin, V. (2022).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urse Practitioners*, 34(3), 509-519.
- Kılıç, M., & Koçak, S. (2023). Examination of psycho-motor development of children who were 6-36 months in the COVID-19 stay at home period. *Scientific Reports*, 13(1), 20801.
- Shuffrey, L. C., Firestein, M. R., Kyle, M. H., Fields, A., Alcántara, C., Amso, D., & Dumitriu, D. (2022). Association of Bir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Neurodevelopmental Status at 6 Months in Infants With and Without In Utero Exposure to Maternal SARS-CoV-2 Infection. *JAMA Pediatrics*, 176(6), e215563.



감사합니다

발표 3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일반조사 결과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일반조사 결과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

2024. 12. 26.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Contents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전문가 포럼

I 일반조사 설계

II 일반조사 주요 결과

III 논의 및 제언

I

일반조사 설계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KICCE 정책토론회


54

일반조사 설계

연구목적

연구목적

- 코로나19 아동발달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표본의 특성과 지역, 검사시점, 검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임.
 - 코로나19 전-후 변화된 발달 현황을 위해 대규모 실증연구와 데이터의 축적을 필요로 함.
- 본 연구의 5개년 과제 목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 이 미치는 아동 발달상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취학전 아동(보육연령 1~5세반 아동)의 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말하는 '코로나세대 아동'은 2020년 2월 시작된 글로벌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을 생애초기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2018년~2022년 출생)과 WHO의 공중보건위기 종식 선언 이후 변화된 교육·돌봄 환경 하에서 성장·발달하는 포스트코로나 아동 세대(2023년~2026년 출생)를 포괄함.

일반조사 설계	연구내용 및 방법
<h2>연구내용 및 방법</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연령별 그룹(보육연령 기준 1~5세, 5개 연령)에 대한 아동발달 현황에 대해 재원 반/학급의 담임교사-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ST, 신체, 인지, 언어, 사회정서에 대한 발달영역별 주요 척도와 질문 활용 아동발달 특성, 부모 특성, 교사 특성, 기관이용 특성, 미디어 이용, 동네 특성, 아동 건강 특성 등 1~5세 기관이용률 연령별 85%를 상회. <p>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유형, 아동연령,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총화표본추출</p> <p>전국 아동통계등록부상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지역 비율을 산출하고,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출. 학급 내 무선표집(명부 중간에 위치한 아동 남녀 각 1명씩, 반/학급당 2명씩 랜덤 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1차년도)에 수집된 조사 데이터 결과에 대한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조사결과(일반조사, 심층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Family Policy Research Institute	5



일반조사 설계


표본 구축

<표 1> 연차별 조사 대상 목표 표본(5년 종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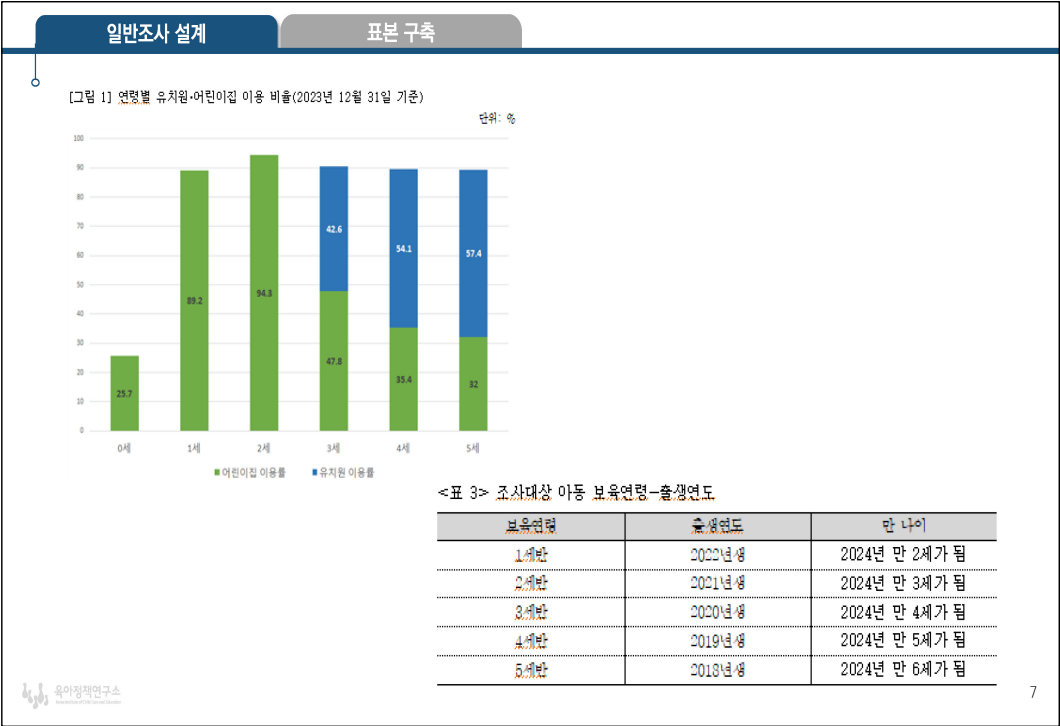
연차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산 누적 표본 수(계)
보육연령	목표 표본 수	목표 표본 수	목표 표본 수	목표 표본 수	목표 표본 수	
1세	2022년생 750	2023년생 550	2024년생 550	2025년생 550	2025년생 550	2,950
2세	2021년생 750	2022년생 550	2023년생 550	2024년생 550	2024년생 550	2,950
3세	2020년생 750	2021년생 550	2022년생 550	2023년생 550	2023년생 550	2,950
4세	2019년생 750	2020년생 550	2021년생 550	2022년생 550	2022년생 550	2,950
5세	2018년생 750	2019년생 550	2020년생 550	2021년생 550	2021년생 550	2,950
누적 표본 수(계)	3,750	2,750	2,750	2,750	2,750	

<표 2> 1차년도 조사 대상 목표 표본 수 및 연령별 특성(코로나 경험 시기, 시기 구분)

출생년도	연차		코로나 경험 시기 구분	연령별 구분
	1차년도 (2024년)	목표 표본 수		
2022년	현재 1세반	750명	임신/태내기부터	영아기
2021년	현재 2세반	750명		
2020년	현재 3세반	750명		
2019년	현재 4세반	750명	1세, 0세 시기부터	유아기
2018년	현재 5세반	750명		

 육아정책연구소
Korea Family Policy Research Institute

6



||

일반조사 결과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I): KICCE 정책토론회

일반조사 결과			표본 개요		
부모 응답자 특성			아동 특성		
(단위 : %)			(단위 : %)		
전체	사례수 (명)	비율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3,767)	100.0	■ 전체 ■	(3,767)	100.0
부모 성별	남	(167) 4.4	아동 성별	남아	(1,899) 50.4
	여	(3,600) 95.6		여아	(1,868) 49.6
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50) 12.0	아동 연령 (반연령)	1세	(648) 17.2
	전문대 졸업	(1,076) 28.6		2세	(717) 19.0
	대학교 졸업	(1,912) 50.8		3세	(749) 19.9
	대학원 졸업	(314) 8.3		4세	(796) 21.1
	부자 한부모가정	(15) 0.4		5세	(356) 9.4
모 취업상태	정규직	(1,536) 40.8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유형 ¹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1,071) 28.4
	비정규직	(360) 9.5		민간/가정어린이집	(1,338) 35.5
	자영업	(414) 11.0		국공립 유치원	(397) 10.5
	학업 중	(22) 0.6		사립 유치원	(962) 25.5
	비취업	(1,420) 37.7	지역 규모	대도시	(1,402) 37.2
	부자 한부모가정	(15) 0.4		중소도시	(1,607) 4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2,171) 57.6		읍면	(758) 20.1
	외벌이 (한부모 포함)	(1,596) 42.4	지역	서울	(560) 14.9
취약가구 여부	해당	(307) 8.2		인천/경기	(1,133) 30.1
	비해당	(3,460) 91.8		충청/강원권	(545) 14.5
가구 소득	307만원 이하(1~4분위)	(470) 12.5		전라/제주권	(526) 14.0
	308~487만원 이하(5~6분위)	(941) 25.0		대경권	(423) 11.2
	488~630만원 이하(7~8분위)	(1,135) 30.1		부울경	(530) 15.4
	631만원 이상(9~10분위 이상)	(1,221) 32.4			



일반조사 결과			표본 개요		
교사 응답자 특성			(단위 : %)		
전체	사례수 (명)	비율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2,433)	100.0	■ 전체 ■	(2,433)	100.0
교사 성별	남자	(20) 0.8	교사 연령	20대	(523) 21.5
	여자	(2,413) 99.2		30대	(762) 31.3
교사 경력	1년 이하	(337) 15.9		40대	(795) 32.7
	1년~5년 미만	(264) 10.8		50세 이상	(353) 14.5
	5년~10년 미만	(1,479) 60.8	교사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7) 4.0
	10년 이상	(304) 12.5		전문대 졸업	(1,059) 43.5
교사 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102) 4.2		대학교 졸업	(1,042) 42.8
	40시간	(1,553) 63.8		대학원 졸업	(236) 9.7
	40시간 초과	(778) 32.0			
교사 급여수준	200만원 미만	(156) 6.4	교사 급여수준	200~250만원 미만	(733) 30.2
	200~250만원 미만	(733) 30.2		250~300만원 미만	(867) 35.7
	250~300만원 미만	(867) 35.7		300~400만원 미만	(519) 21.3
	300~400만원 미만	(519) 21.3		400만원 이상	(108) 4.4
	400만원 이상	(108) 4.4			

일반조사 결과

K-DST

- 본 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에 앞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제시된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참조

표 4> K-DST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비율(2022년)

단위: %

연령	구분	지속관리 필요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양호
전체 (n=2,063,937)	합계	0.7	2.6	9.8	69.9
	남아	0.9	3.4	11.7	67.0
	여아	0.5	1.7	7.9	73.0
9~12개월 (≒2021년생)	합계	0.4	2.3	13.5	83.8
	남아	0.5	2.8	15.1	81.6
	여아	0.4	1.9	11.7	86.0
18~24개월 (≒2020년생)	합계	0.6	3.9	15.1	80.4
	남아	0.8	5.1	18.2	75.9
	여아	0.5	2.7	11.8	85.0
30~36개월 (≒2019년생)	합계	1.1	4.6	13.9	80.5
	남아	1.4	6.3	17.5	74.8
	여아	0.7	2.7	10.1	86.5
42~48개월 (≒2018년생)	합계	1.0	3.2	9.7	86.0
	남아	1.4	4.5	12.1	82.0
	여아	0.7	1.8	7.2	90.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건분야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현황(2022년)을 비율로 산출함.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님.

일반조사 결과

K-DST

- 6개 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자조 영역)별로 영유아의 발달이 어떠한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산출하여 단계(심화평가권고, 추적검사요망, 또래수준, 빠른수준)의 비율을 제시
- K-DST는 선별검사로, 발달이 양호한 또래수준과 빠른 수준의 영유아보다 심화평가권고 및 추적검사요망 영유아의 비율과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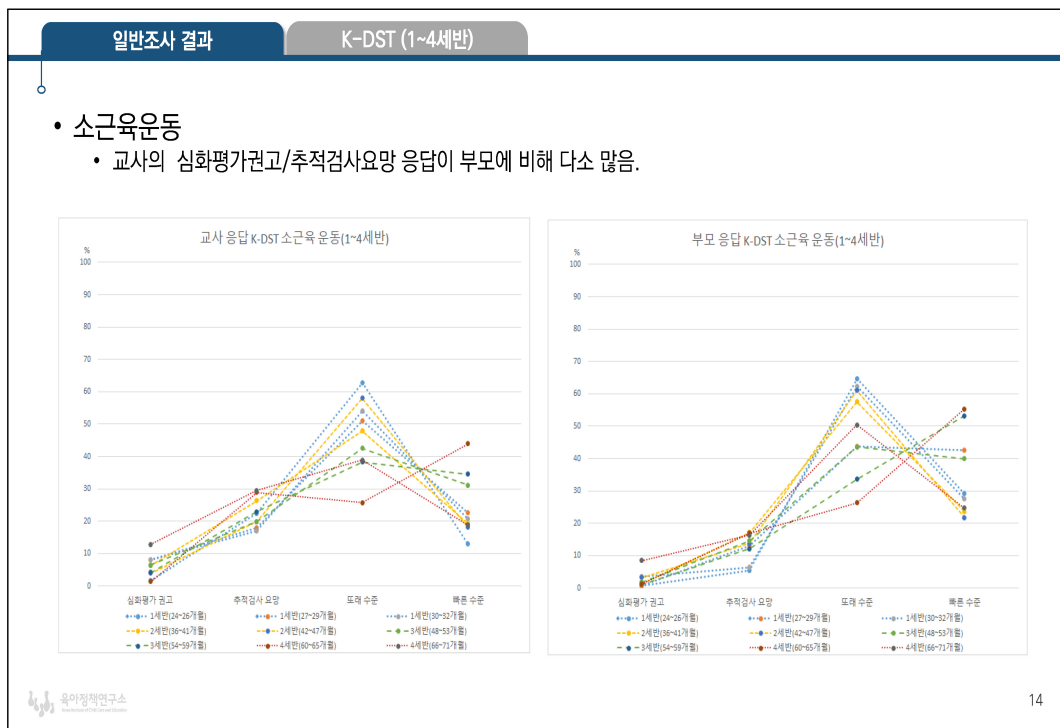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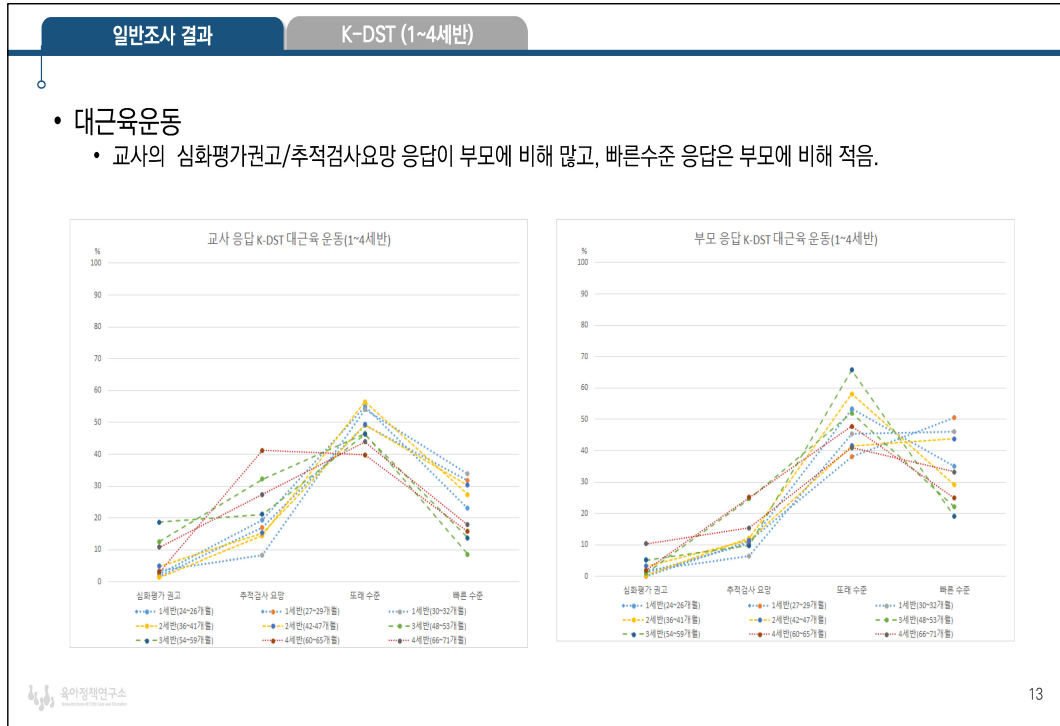
표 5> K-DST 대근육운동(1세반)

단위: %, 절(명)

구분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또래 수준	빠른 수준	계(수)
부모					
전체(24~26개월)	1.2	10.4	53.3	35.1	100.0 (84)
전체(27~29개월)	0.0	11.2	38.2	50.6	100.0 (227)
전체(30~32개월)	2.0	6.5	45.3	46.2	100.0 (227)
교사					
전체(24~26개월)	2.5	19.4	55.0	23.0	100.0 (34)
전체(27~29개월)	1.8	17.1	49.1	31.9	100.0 (227)
전체(30~32개월)	3.7	8.3	54.0	34.0	100.0 (227)

부모응답: 양호하다(또래수준+빠른수준) 약 88%이상, 심화평가권고 0.0~2.0%, 추적검사요망 6.5~10.4%

교사응답: 양호하다(또래수준+빠른수준) 약 78%이상, 심화평가권고 1.3~3.7%, 추적검사요망 3.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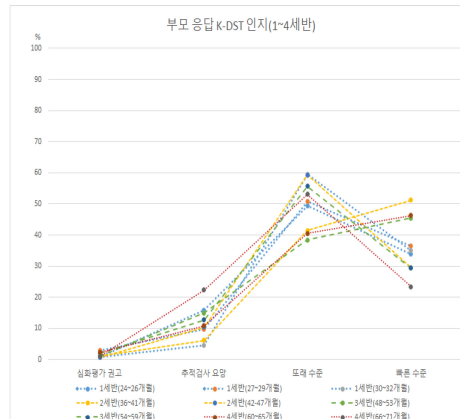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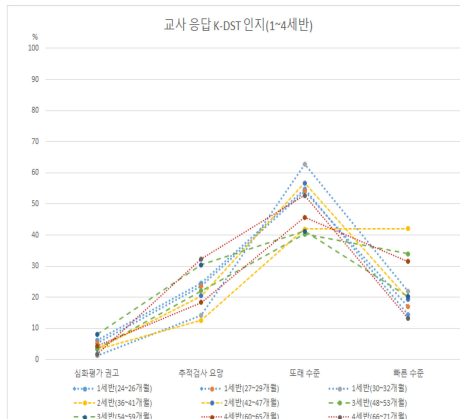


일반조사 결과

K-DST (1~4세반)

• 인지발달

- 부모의 빠른수준 응답이 교사에 비해 좀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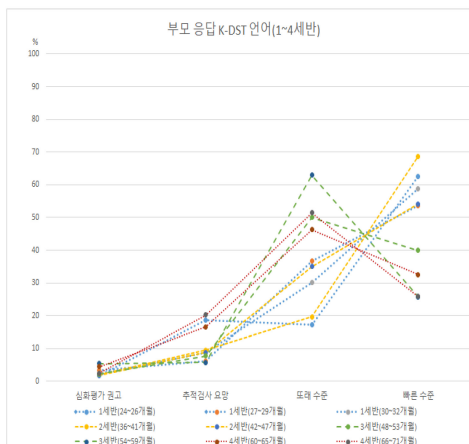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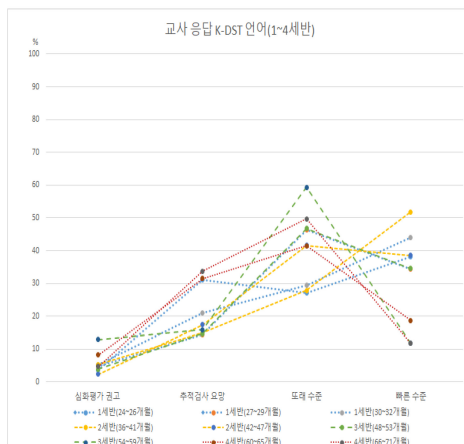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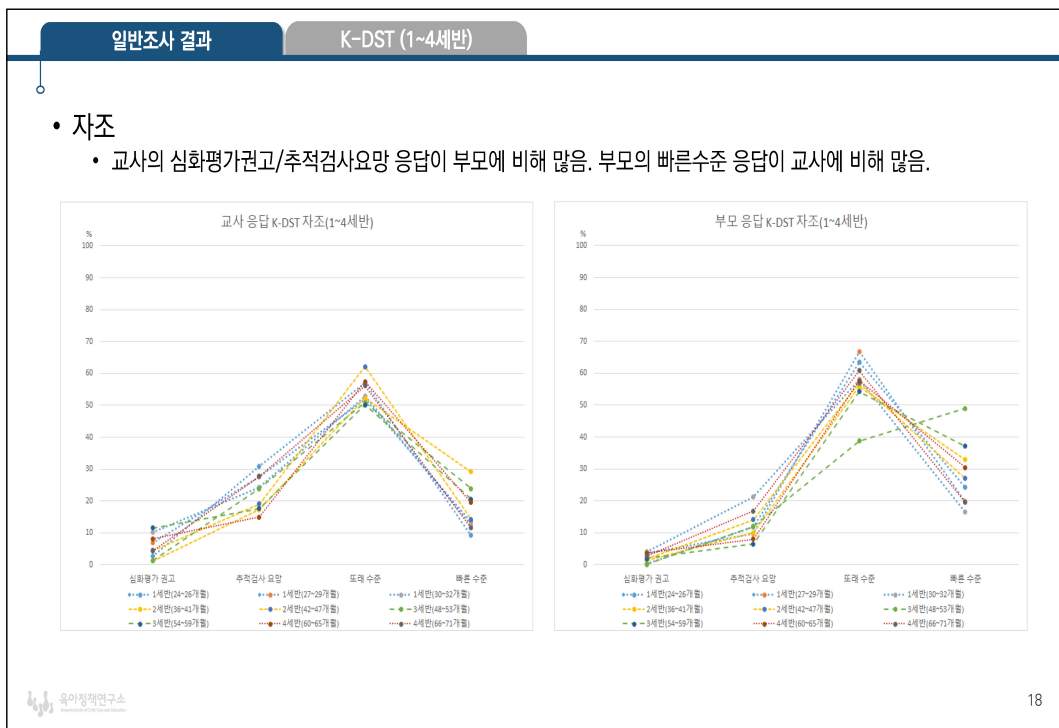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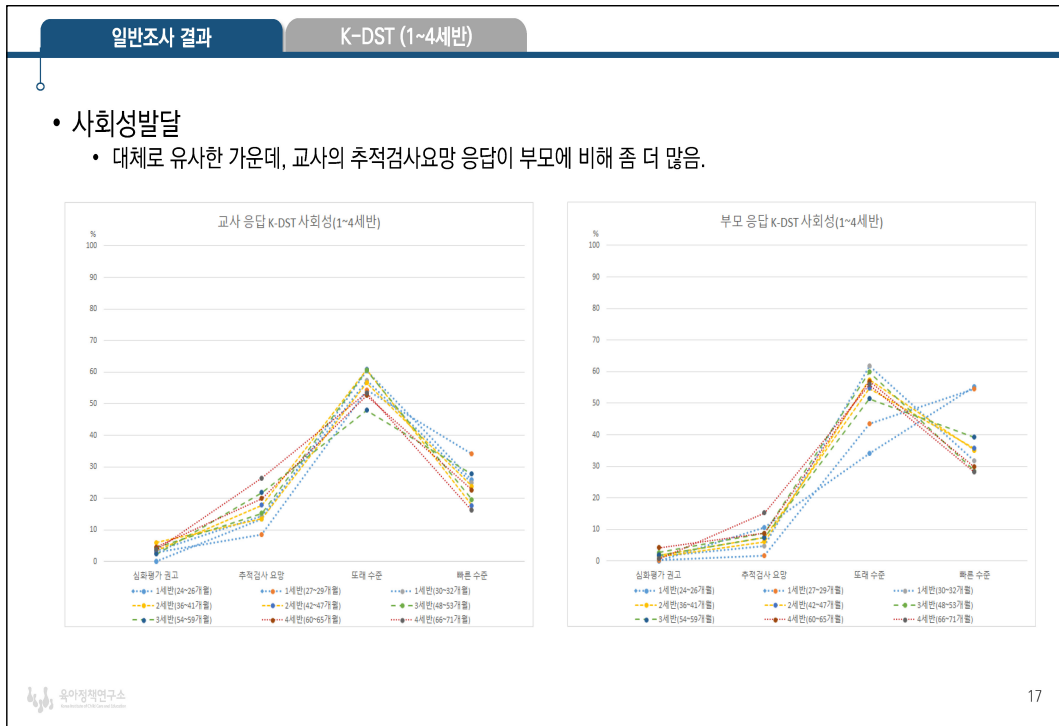
일반조사 결과

K-DST (1~4세반)

• 언어발달

- 언어발달의 경우, 연령별 편차가 큼. 빠른 수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부모)교사 응답).
- 교사의 추적검사요망 응답이 1세반(24~26개월), 4세반에서 30% 이상을 보임.





일반조사 결과

학업능력 (5세반)

• 학업능력(5세반)

- 5세반(2018년생)의 경우 K-DST 월령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학업능력 척도」를 활용함.
- 5점척도 평균 4.0 내외로, 조사시점이 연중 하반기의 초등학교 입학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표 6> 학업능력(2018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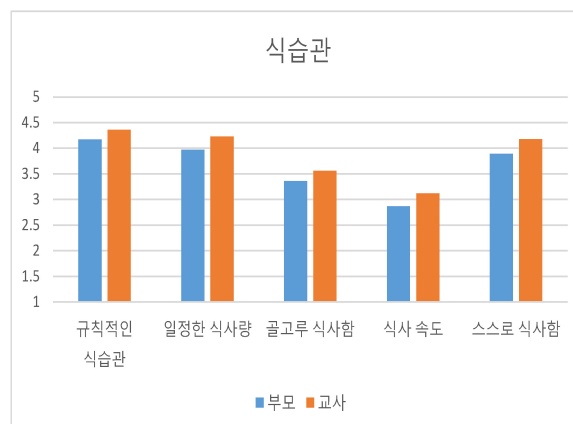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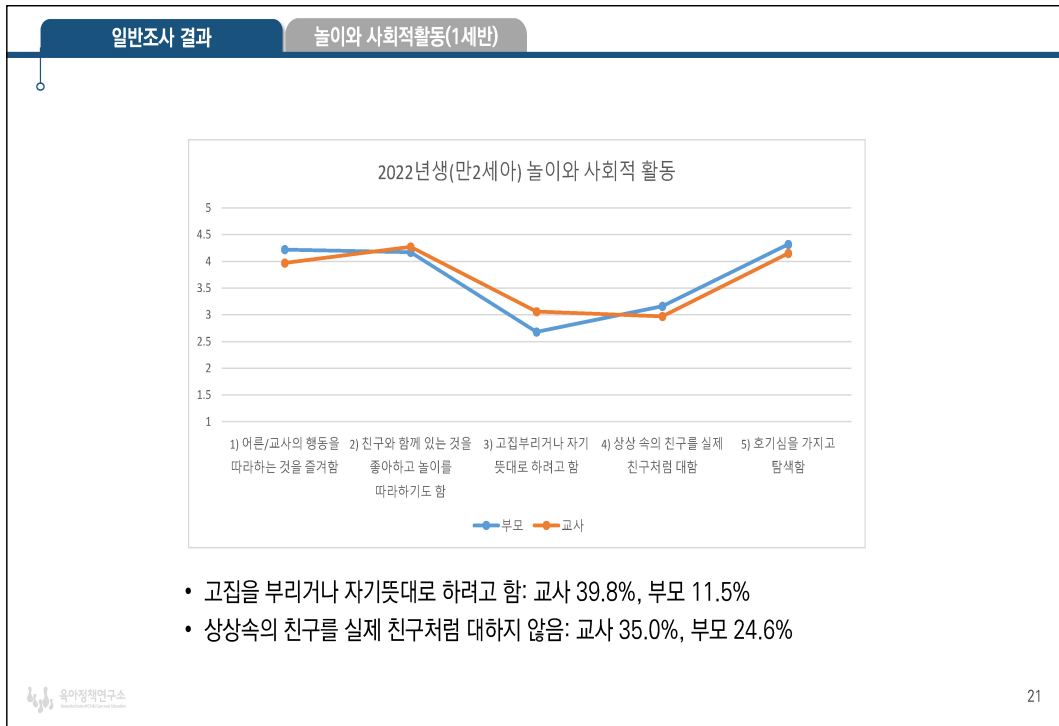
구분	언어 및 문해 능력		수리적 사고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 최종	4.0	0.8	3.8	0.9	(830)
교사 최종	4.1	0.9	4.0	0.9	(830)

주: 5점 척도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일반조사 결과

일상생활-식습관(1~5세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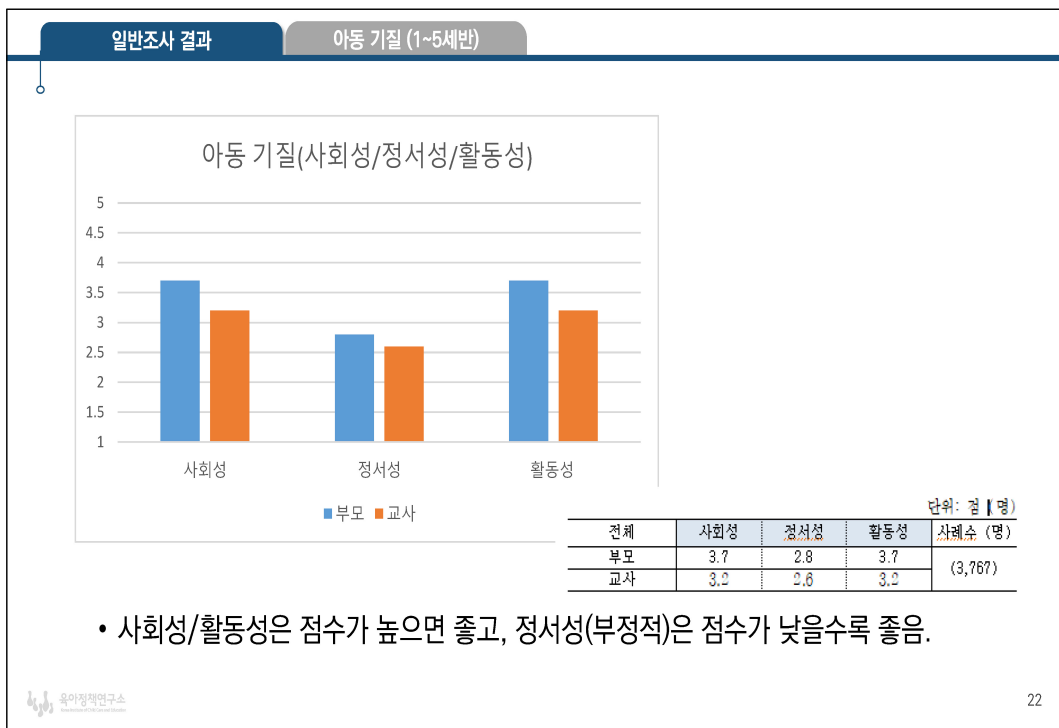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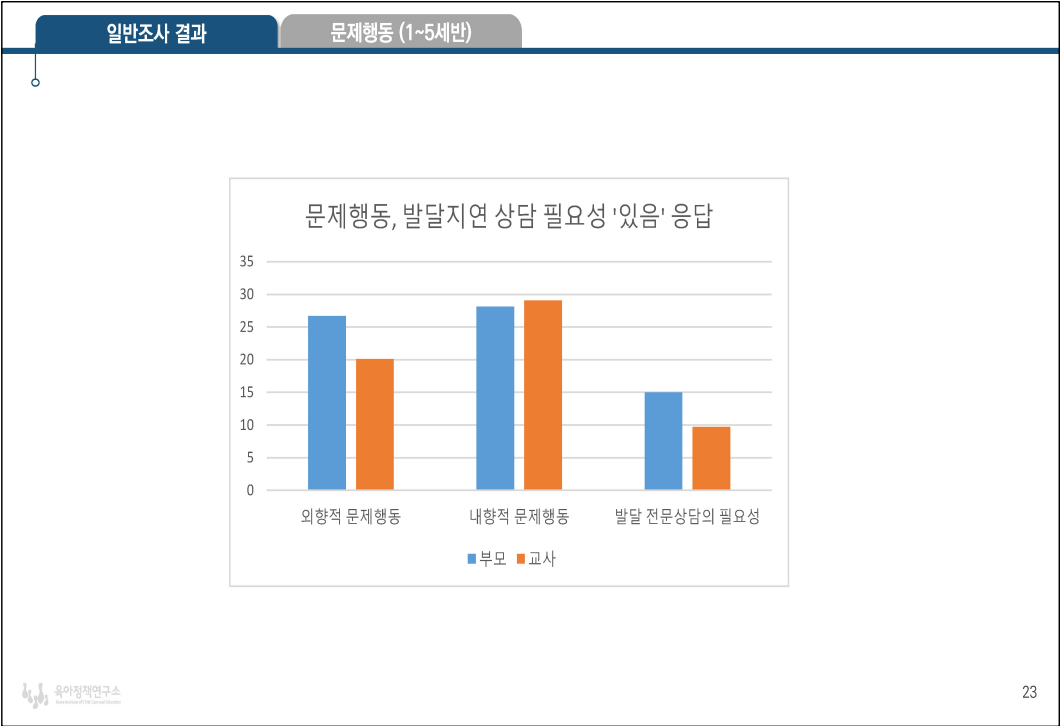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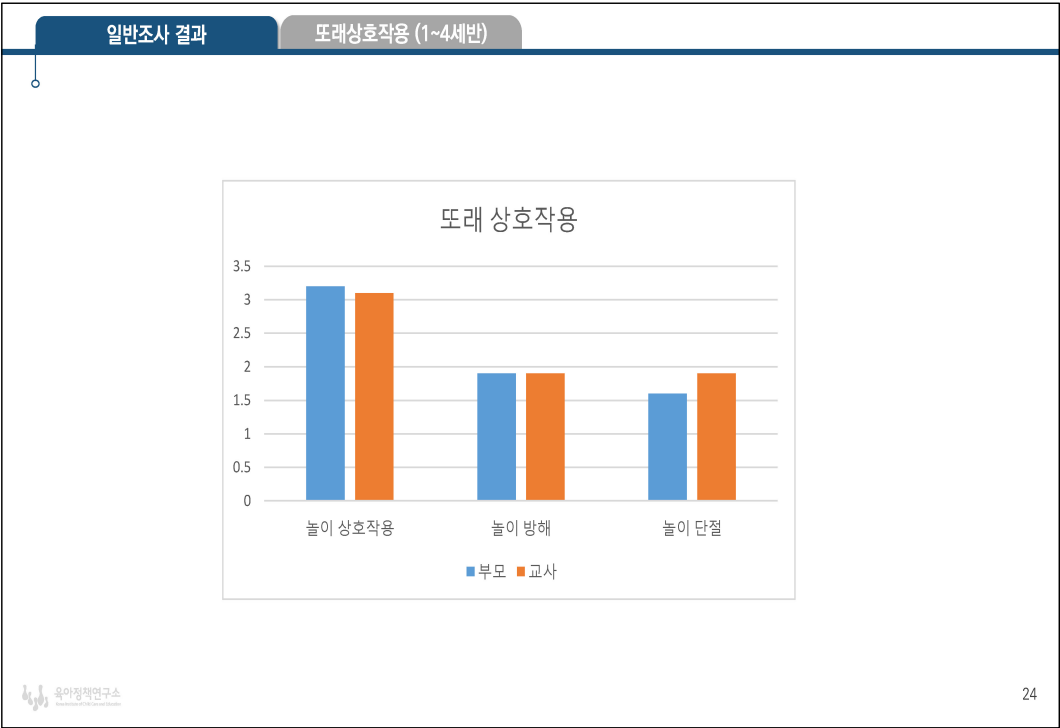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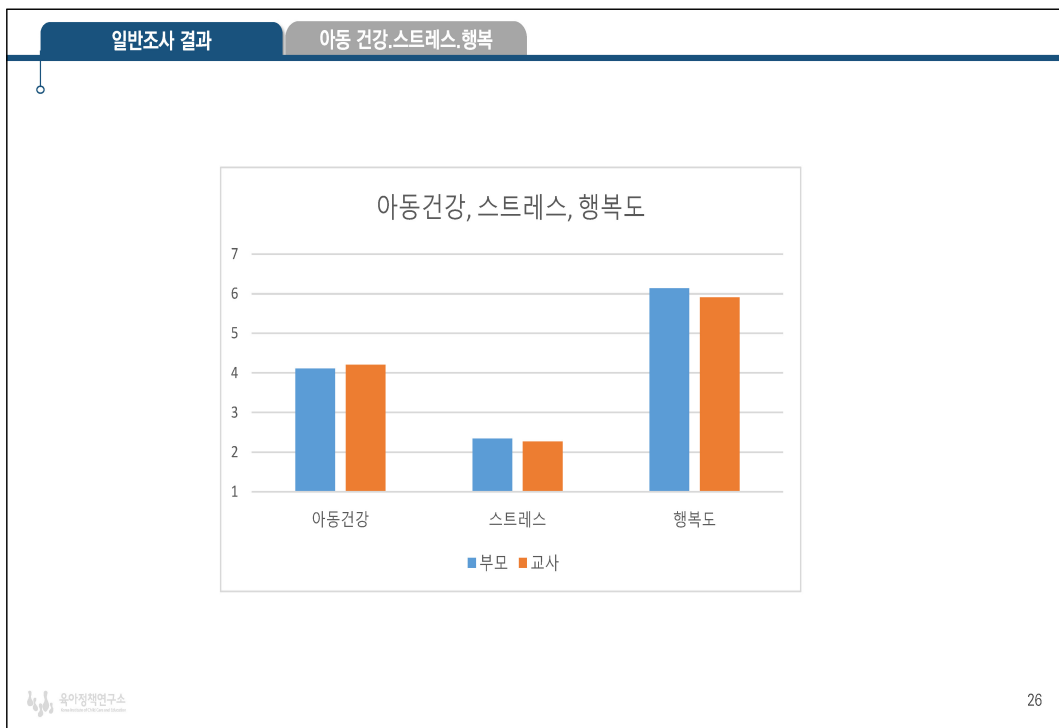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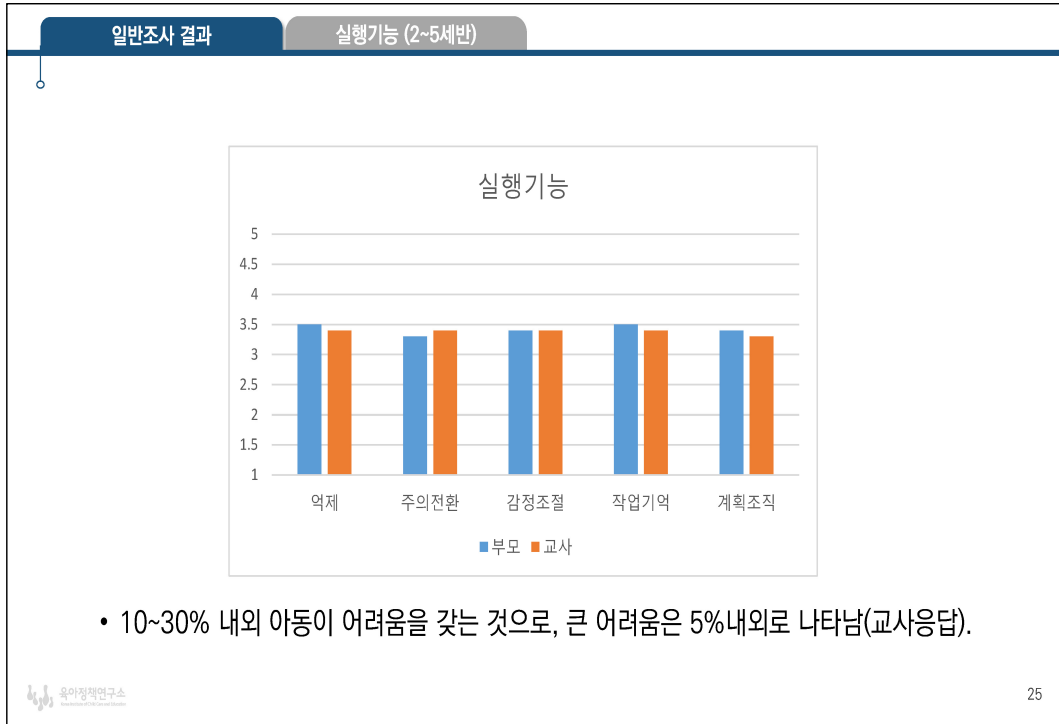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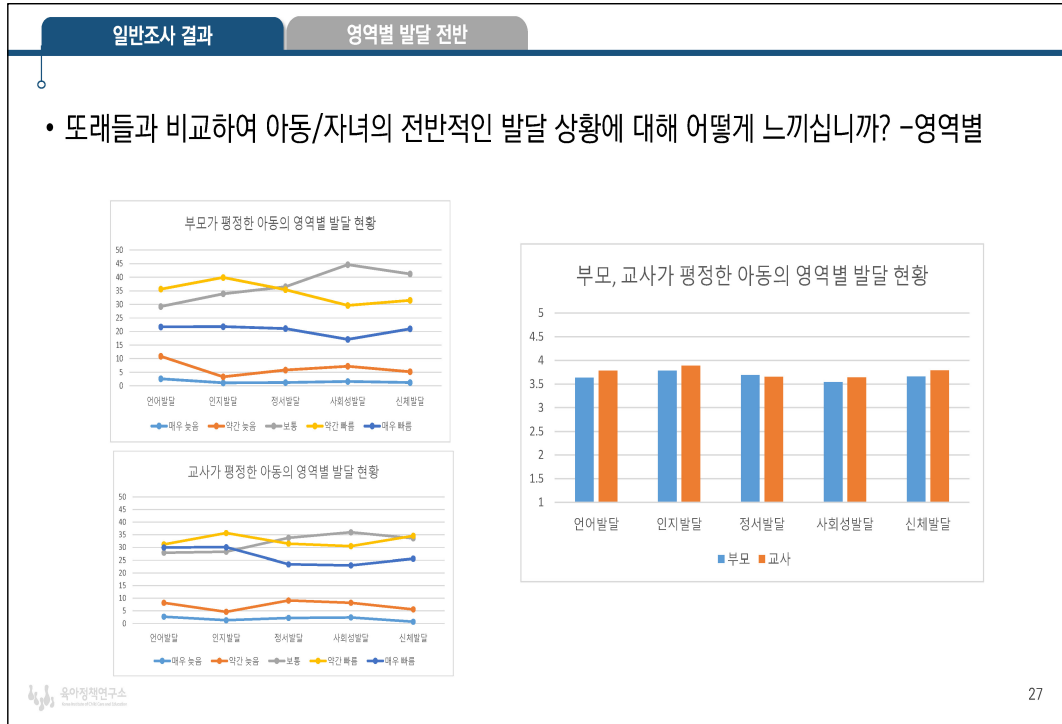
2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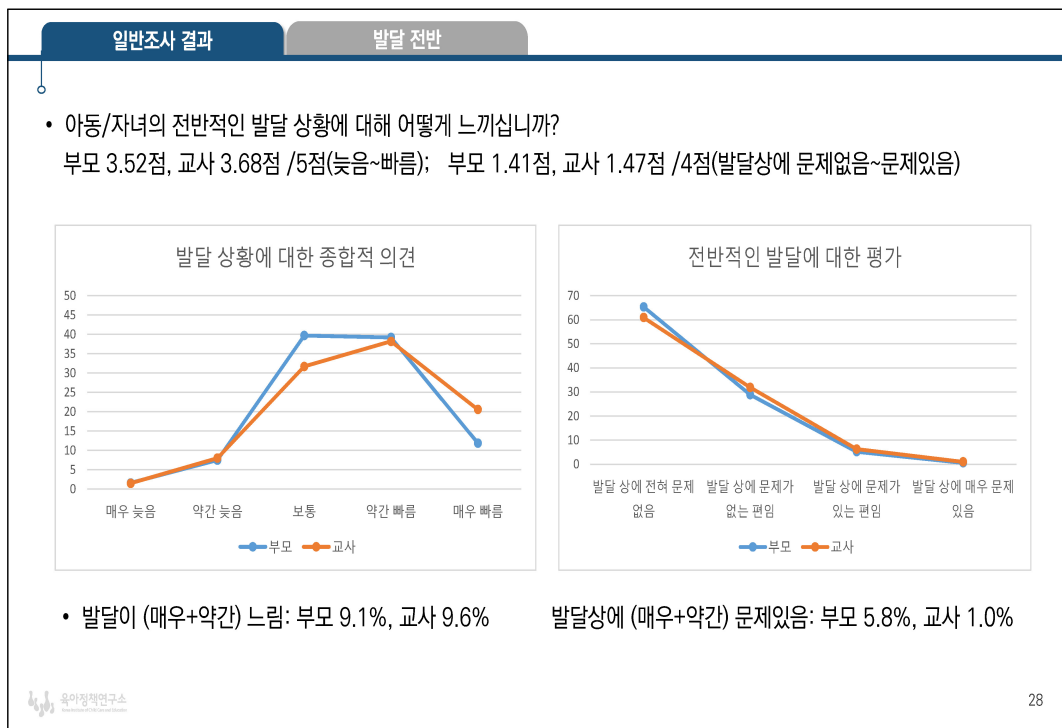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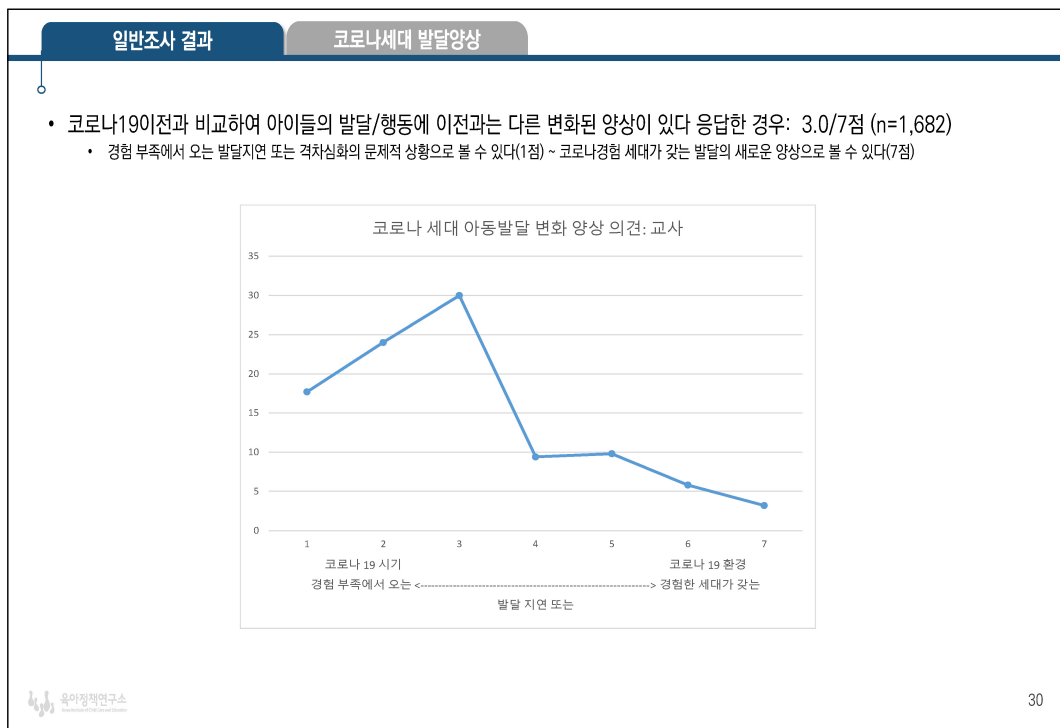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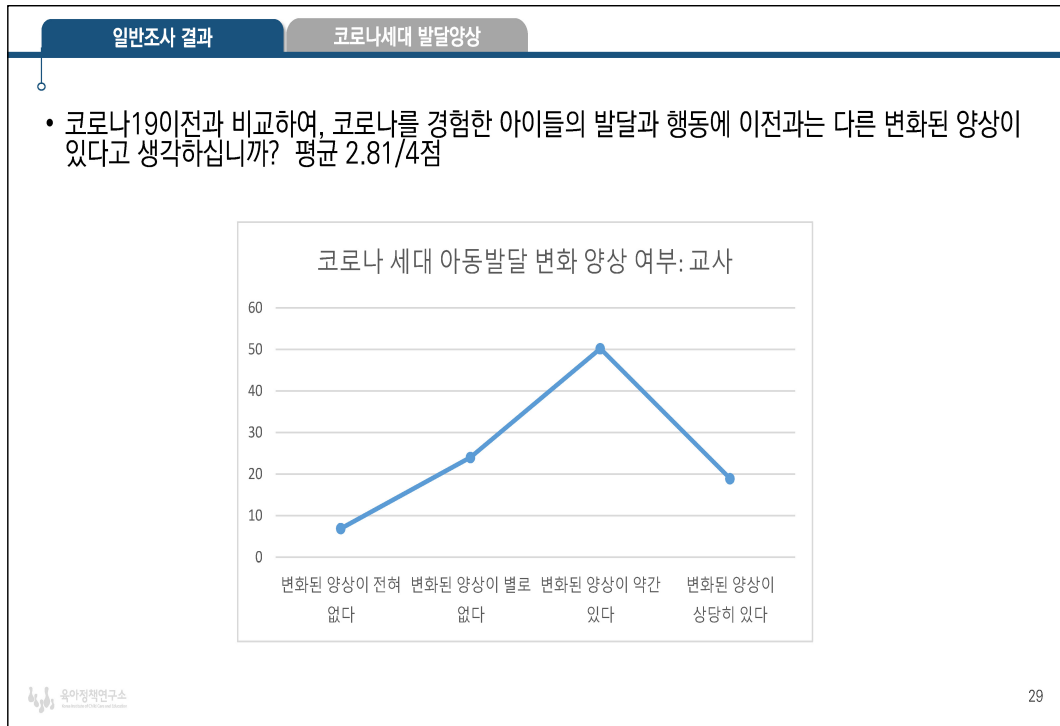


2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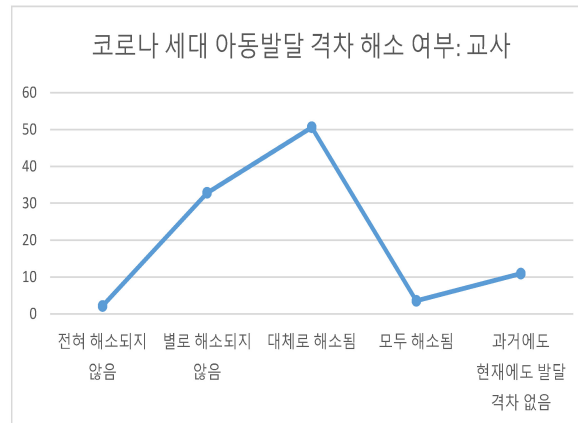
28



일반조사 결과

발달격차 해소


- 코로나로 인한 발달격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2.88/4점 (해소되지않음 34.9%)




III

논의 및 제언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추적 연구(): KICCE 정책토론회

논의 및 제언	요약
<h2>결과요약</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하루 일과 활동에서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 및 맞벌이 여부, 기관유형, 아동연령과 지역규모 등 주요 환경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코로나세대 아동의 발달 특성 결과에서도 모 학력과 가구소득, 저소득/한부모/다문화 등 취약 특성에 의해, 그리고 지역규모 및 지역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아동의 발달특성 평균에 의하면 대체로 '보통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점수(척도) 분포를 살펴보면 5점척도 1,2점에 해당하는 부정적 평정의 비율이 항목별로 10~20% 내외로 나타남. • 사회성 발달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동이 놀이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또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으나, 개별 항목별로 놀이 방해와 단절에서 친구들과 거부되거나 어울리지 못하고 위축되는 아동이 10~20% 내외로 나타났다.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인 '억제'와 '주의전환', '감정 조절'과 '작업기억', '계획조직'에서도 약 10~30% 내외 아동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교사 응답에서 나타났으며, 실행기능별로 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5% 내외로 나타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33 </div>	



논의 및 제언	요약
<h2>결과요약</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사가 응답한 K-DST 결과에서도 '심화평가권고+추적검사요망'이 연령별 · 영역별로 10~20% 내외로 나타남. • 전반적인 경향이 또래평균 수준 및 또래보다 우수한/빠른 비율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심화평가+추적을 필요로 하는 잠재군도 일관되게 나타남에 대한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조기개입과 중재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34 </div>	

논의 및 제언

- 1~2세(반) 발달 차이 생애초기 환경의 사회경제적·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고도화
-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교육과정 및 모니터링 지원 체계
- 부모-교사 응답의 유사성과 차이점
 -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교사 주축의 부모-지역사회 연계 구축
- 아동 발달 과정 및 특성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

감사합니다

토 론

전숙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민소영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수 교수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보람 교수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토론문 1

코로나시대 아동발달: 회복과 성장을 향한 과제

전숙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코로나19 팬데믹 후 우리는 팬데믹이 초래한 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회복과 적응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팬데믹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 가속화된 디지털 기술 활용과 비대면 상호작용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여전히 아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초기의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팬데믹 이후 ‘변화된 환경’이 미치는 아동 발달상의 영향을 파악하여 장기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1차 년도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될 연구를 통해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아동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며, 본 토론에서는 1차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아동발달 연구 동향

먼저 이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교육 중요성**의 확인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공교육은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는 일차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만이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유치원의 교육 기간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보육 및 교육 기관의 폐쇄가 아닌 공교육의 적극적인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최은영 외, 2023)에서도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아동에게서 의사소통 영역과 사회성



발달이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의 양면성**도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 활용의 가속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교육 및 상호작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과도한 디지털 사용은 오히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영유아기의 이른 디지털 노출이 미치는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 기술이 교육뿐 아니라 돌봄, 정신건강 등 사회정서 영역에도 접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연구(2024 심층조사 결과)

이 발표에서는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2~3세였던 2018년생 유아들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하였는데, 첫째, 팬데믹 기간을 거친 유아들이 **사회성 발달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팬데믹의 경험과 이후 변화된 환경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경험과 이에 익숙해진 환경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와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지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부분이겠습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결과는 지능을 설명하는 지표 중 **언어 이해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계적,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선행연구(최은영, 2023)에서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의 언어 이해 지표가 유의하게 하락했다는 결과에 비춰 볼 때 이 역시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더불어, 비언어지표의 변화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과 이후 변화된 환경이 언어 이해 및 비언어적 사고와 분석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의 가능성 역시 다양한 변인들(예를 들어, 가계소득, 디지털 사용 등)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세대 아동 발달 연구(2024 일반조사 결과)

코로나세대에 대한 일반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 발달의 양극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아동 발달의 질적 측면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는 예측된 결과이지만, 교사는 심화 평가 권고와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부모는 발달 전문 상담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응답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발달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발달 문제가 인지되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모와 교사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구의 제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부모와 교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기관 및 교사 중심의 영유아 발달 지원 전달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10~20%)을 통해 **발달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했던 취약 계층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해 공교육 내의 교육과정이 중요하며, 나아가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좀 더 세밀한 단계적 지원체계로의 연결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동 발달의 질적 측면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록 코로나 세대 아동 발달의 현상을 뉴노멀로 보는 응답 비율은 적다 하더라도, 아동발달의 양상이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의 부족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적 변화가 가져온 발달의 질적 측면의 새로운 방향을 5년간 축적되는 코호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 가져온 변화와 환경이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능력을 존중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차년도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행될 연구가 아동의 긍정적 삶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최은영, 김은영, 김태우, 윤정환, 이영애, 박희현, 최윤경(2023). *코로나19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격차 해소방안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토론문 2

민소영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전공)

코로나19가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회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미 크고 작은 연구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표본을 조사함으로써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노출에 따른 부정적 발달상황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향후의 정책 방향을, 증거기반으로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I. 해외 및 국내 분석 결과 비교가 제공하는 함의 정리 필요

연구 동향에서 제시된 내용에 의하면, 팬데믹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된 대규모 아동발달추적 연구에서는 외국 결과와 사뭇 달라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만명 이상이라는 대규모 조사를 수행한 미국의 경우 의사소통과 사회성은 감소한 반면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근육 발달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였습니다(물론 미국의 경우 성별 분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5세반에서 사회성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해외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설문조사 방법이나 조사대상, 조사 도구의 차이인지 아니면 문화적 또는 정책적 차이인지를 해석하여 기술해 준다면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하는 학술적 연구로서 가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I. 지역별 비교분석이 갖는 함의의 모호성

지역별 비교를 하였는데, 시도별 지역 비교가 적절한지, 즉 시도별 지역 비교가 어떠한 실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모호해 보입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밀집한 인구 밀도를 가진 대도시 지역일수록 지역 봉쇄를 경험하게 되거나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일수록 녹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이라 자유로운 외출이 더 가능하였고 이러한 지역적 환경이 팬데믹 시기에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대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되어 있을텐데, 시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론적 그리고 정책 및 실천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을지가 모호해 보입니다.

III. 표본 규모와 표집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목표 표본수는 1세부터 5세까지 각 연령대별로 750명이며, 총 3,75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3명(1세)부터 많게는 856명(5세)까지 다양하였습니다. 목표 표본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나 여러 어려운 조사 환경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수를 넘겨서 조사하는 것은 과대 표집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가중치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 조사 설계는 기관 유형, 연령, 지역규모를 기준으로 층화표집하면서 각 층화를 고려하여 목표 표본수를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 표본수를 초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 조사에서 본래 층화표집하면서 설계하였던 가중치를 포함한 설계 틀이 자칫 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IV. 추가 조사 설계

해외 연구에 의하면 팬데믹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을 받는 발달성과 영역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표문들에서도 밝혔듯이 부모와 가정과 지역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 눈여겨볼 것은

실제로 확진을 경험한 영유아는 문제행동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확진은 아니었으나 펜데믹 환경에 놓인 아동들 간에서도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 이외에 이처럼 확진 여부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확진 여부를 파악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악하였다면 확진 여부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확진아동 표본수는 매우 작을 수 있으므로 확진 아동에 대한 심층 종단 연구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V. 지자체 단위 정책 대안 구체화

발표문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영유아 시기의 발달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발달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유아 발달에 개입하는 다양한 서비스 정책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드림스타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평가 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등 매우 다양합니다. 현 정부의 아동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서도 아동기 집중투자가 강조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발달 개입 정책들이 ‘조기 발견, 진단·평가, 서비스 연계 및 점검’ 단계에서 서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 설계가 제안되고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 외에 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아동 발달 개입 사업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좋은 지역단위(특히 시군구 단위) 정책 사례를 제안하거나 또는 기존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홍보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3

김연수 교수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들은 급격한 물리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했다. 영유아들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고, 다중이용시설과 보육 기관의 제한적 이용으로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도 어려워졌다. 2023년 5월 WHO에 의해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2024년도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팬데믹은 오래 전의 상황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랬듯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팬데믹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아야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24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현황과 과제 토론회는 최근의 관련 연구 동향과 기초 및 심층조사 분석을 통해 팬데믹이 영유아 발달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첫 번째 발표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유아발달』에서는 전반적 발달 및 정신 건강, 인지 및 언어, 사회정서 등 영역별 영유아 발달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발달심리학에서 다루어져 온 다양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논의되었다. 또한 디지털시대 미디어 요인이 코로나세대와 포스트코로나세대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팬데믹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따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이 논의되었다. 1-2세 cohort와 5세 cohort의 인지 및 적응행동에서의 차이가 분석된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심층조사 결과』 역시 팬데믹을 경험한 연령, 성별, 지역 변인을 고려하여 코로나세대 아동발달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를 경험했던 5세 cohort에서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첫 번째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Giordano와 동료들의 연구(2024)에서



나타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든 조건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었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 2024 일반조사 결과』에서는 주요 환경 변인에 따라 아동의 하루 일과 활동 및 발달 특성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으며, 사회성 발달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위축되는 아동의 비율이 10~20% 내외로 나타나는 등 이후 발달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결과가 나타났다.

세 발표 모두에서 팬데믹에 따른 영유아 발달 결과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다양한 층위의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 팬데믹이 생애 초기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지속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횡단, 종단, cohort 비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8년까지 지속될 코로나세대 아동발달 연구팀의 도전에 주목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팬데믹 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생애 초기 영유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탄탄한 실증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4

이보람 교수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생활을 일상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아동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적 상호작용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시점부터 해제까지의 기간은 약 3년 2개월(2020년 3월 11일~2023년 5월 5일)에 해당하지만,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발달 민감기에 있던 영유아에게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와 함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와 부모들은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의 격차를 지적했으며,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가 감소하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실행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많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코로나19가 영유아 발달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미국과 대만의 연구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들에 있어서 초기 발달 지연이 보고되었으며, 디지털 미디어 과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가정 내 활동 강화로 긍정적 발달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팬데믹 시기의 아동발달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완화되거나 회복된 사례도 많아서 아동이 속해있는 환경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발달 결과를 조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평등을 심화하듯이(Mutter, 2016),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역시 지역, 성별, 부모의 교육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보고되었으며, 대만과 독일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발달 문제를 단순히 팬데믹 탓으로 돌리기 어려우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부모들은 코로나19 동안 대안적 활동을 통해 자녀의 발달을 지원했으며, 이는 발달 지연을 상쇄하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종단 연구에서도 발달의 부정적인 결과가 24개월 이후에는 회복된 결과를 통해 아동 발달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 발달의 가소성과 환경적 변인에 따른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제목과 같이 아동 발달의 현황과 과제를 ‘코로나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특성 프레임으로 규정지으면 오히려 아동 개개인의 고유한 개별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낙인효과나 발달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할 기회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다문화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장애 아동과 같이 아동을 특정 프레임으로 정책 대상화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화는 특정 집단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아동을 특정 범주로 한정하고 객체화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모든 아동을 고유한 개인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견지에서 몇 가지 아동 발달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및 가정환경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서 발달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저소득, 취약 가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문제가 발견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러닝메이트와 발달선별검사(KSIED)는 발달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인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체계적 지원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교사, 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체계를 포괄하여 연구하고, 그들의 협력과 연계를 지원할 방안을 고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504 계획(Section 504 Plan)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일지라도 학습, 이동성, 건강, 행동 등에서 특별한 조정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 부모, 보건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협력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deBettencourt, 2002). 캐나다 역시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통해 아동의 의료정보, 진료기록, 치료이력 등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저장하여 의료진, 교사, 부모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아동의 최신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의료 처치와 교육적 지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Hagström et al., 2022). 우리나라도 아동을 둘러싼 환경 간의 중간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코로나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아동을 규정짓기보다는, 각 아동의 개별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 발달의 가소성과 회복탄력성을 믿는 긍정적 시각의 접근이 팬데믹 이후의 발달격차를 해소할 핵심 열쇠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연구와 정책은 부정적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 회복 가능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deBettencourt, L. U. (2002).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IDEA and Section 504.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4(3), 16-23.
- Hagström, J., Blease, C., Haage, B., Scandurra, I., Hansson, S., & Hägglund, M. (2022). Use of and experiences with online access to electronic health records for par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protocol for a scoping review. *JMIR Research Protocols*, 11(6), e36158.
<https://doi.org/10.2196/36158>
- Mutter, J. (2016). Opportunity from Crisis: who really benefits from post-disaster rebuilding efforts?, Retrieved from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16-04-18/opportunity-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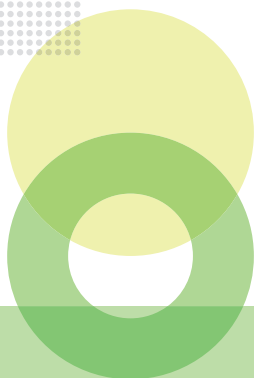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2024년 제9차 KICCE 정책토론회

2024 코로나시대 아동발달 현황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